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간호 현장의 이야기

서울간호

www.seoulurse.or.kr

2024. 08. SUMMER

특별기고

나의 삶과 음악의 미래

지상강의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고마운 당신에게

최신의료동향

간호의 경제성 평가와 정책적
활용





2024. 08. SUMMER 서울특별시간호사회 www.seoulnurse.or.kr

발행인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편집위원장	회장 조윤수
편집위원	김윤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경자 (주식회사 피지랩)
	김남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숙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최인숙 (경희의료원)
	한세영 (서울대학교병원)
편집인	과장 이주연

서울간호 2024년 여름호 통권 제43호

발행일	2024. 8.
발행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서울 구로구 공원로 6가길 26
	T. 02-853-5497 F. 02-859-0146
	E-mail sna@seoulnurse.or.kr
	홈페이지 www.seoulnurse.or.kr

디자인 · 인쇄 홍진피앤피 T.02-2275-9875

>> CONTENTS

> Column	권두언	한국 간호: 이제는 이루어야 할 때다	_ 02
> Feature	특별기고	나의 삶과 음악의 미래	_ 04
	지상강의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고마운 당신에게	_ 08
	최신의료동향	간호의 경제성 평가와 정책적 활용	_ 12
	피플	건성으로 하는 것.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	_ 16
> 회원들의 이야기	에세이		_ 18
	포토에세이		_ 62
> SNA News	본회소식		_ 70

한국 간호: 이제는 이루어야 할 때다



☀️ 김소선 前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

Johns Hopkins 병원은 33년 연속 병원평가 순위 top 5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병원이다. 2024년에 내가 경험했던 1978년의 병동상황을 자랑처럼 소개하자니 몹시 자존심이 상하긴 하나 현실직시 목적임에 이해를 구한다.

병동의 모든 환자들은 Primary Nursing Delivery System하에 주간호사(primary nurse)와 부간호사(associate nurse)를 배정받는다. 주간호사는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해당 환자를 담당하되 휴무 시에는 부간호사가 환자를 관리함으로써 간호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한 명의 간호사가 5명의 환자를 간호한다. 주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완벽한 파악과 ownership으로 회진 시 의사들을 대상으로 담당 환자 각각에 대한 브리핑(bullet presentation)을 하고 추후 계획과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말한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lab 결과나 자신이 확인한 건강사정 결과에 따라 프로토콜이나 주

어진 범위 내에서 처방을 변경하기도 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탁월한 지식과 건강사정 기술, 그리고 이들을 종합, 분석하는 비판적 사고는 이들의 필수 역량이다. 매주 금요일은 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사업가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간 Patient Care Conference를 개최하여 환자에 대한 Best Practice를 논하는데, 이때 진행의 주최는 주간호사이다.

환자 경과기록지(progress note)는 학제 간 구분 없이 기록함으로써 각 부서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융통성과 편의성을 기하고 있다. 간호사의 역량개발은 Career Ladder System을 적용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준비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 간호사에 대한 계속교육은 해당 전공 Clinical Nurse Specialist가 담당하되 교육 후 시험을 통해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정도를 확인하고 시험의 결과는 Unit manager(head nurse)에게 보고한다. Unit manager(head nurse)는 병동의 간호사 채용, 해임, 승진 등

의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재정을 총괄하고 있어 명칭에 걸맞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자들은 전문직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공통요소로 과학적 지식, 상위수준의 교육, 자율성, 책임과 의무, 윤리의식을 꼽는다. 이 중 특히 한국간호에서 지적해 온 결여요소는 자율성이며 자율성 결여는 간호를 career로 인식하는 방해요인으로 이직으로 연결된다. 만약 한국의 병동 간호가 Johns Hopkins 병원 수준이라면 오히려 스스로를 전문직 간호사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간호를 평생직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간호는 한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에 비해 전문직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느리고 조직문화가 구시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꿈을 꿀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변했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24년 보험개발원이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기대수명은 여성은 90.7세, 남성은 86.3세이다. 이에 따른 만성, 복합질환자 증가는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고 다학제간 접근을 계기로 조정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기대한다. 더욱이 의료와 IT기술의 발전은 간호사의 또 다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만들었다. 이제는 그동안 한국간호가 느리게 걸어 온 만큼 일본, 일초를 아껴 완벽하고 이상적인 간호를 실현해 보이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답이 될 것이다.

간호는 과학이자 예술(Scientific Art)로서 대상자와 공감하며 과학에 근거한 좋은 간호(best nursing)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Art는 실습을 통하여 완성되어 간다. 그러나 한국 간호교육의 현실은 자대병원이 있는 학교가 20%에 국한하여 부실 실습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일 전략으로 자대병원이 없는 학교의 경우는 병원에 투입되기 전 단계에 실제 병원과 같은 시설에서 역량개발과 적응훈련을 한다면 학생과 실습제공 기관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Boston에 소재한 일 대학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수술실, 일반병동, 투석실 등을 갖춘 시설을 만들어 교육인력이 열악한 중소병원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유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양질의 인력 훈련과 함께 수입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대학의 간호교육과정 framework 또한 주변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확인하여 개혁함으로써 교육과 현실의 괴리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Pastreich(2015)는 그의 저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은 자신들이 모르거나 의식하지 못한 독특한 잠재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하였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이다. 의료인력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각각의 자리에서 당당한 전문인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이팅게일은 170년 전에 환경개선과 위생에 의한 사망률 감소를 간호사의 기여로 가시화하여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간호성과지표 개발과 결과보고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간호전문직의 기여를 가시화하는 것은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필수적인 홍보전략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영역이다.

Covey(1989)는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에서 ‘While good managers do things right, Good leaders do the right things’이라며 do the right things를 위해서는 리더의 경험, 시간,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 간호의 미래를 리드하고 간호사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envisioning, empowering, energizing할 수 있는 헌신적인 참 리더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이 우리가 꿈꾸어 온 이상적인 간호교육과 실무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법제화되어 ‘I am a Nurse’라는 sticker를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니는 그날이 오길 소망하며 글을 맺는다.

나의 삶과 음악의 미래

남카라 한국국제예술학교 교장





2022년 가을 나는 남편인 지휘자 조정현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의 학교를 그리며 경기도 이천 도예촌 안에 한국국제예술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of Arts)를 설립하였다. 학생들이 순수하게 음악에만 몰두할 수 있는 곳. 음악 관련 수업을 그 어떤 곳보다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곳.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과 맑은 공기가 함께 어우러져 심신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곳. 유학을 가지 않아도 외국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나은 레벨의 수업과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곳. 그런 이상적인 학교를 만들어 음악가의 길을 선택한 후학들이 보다 나은,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던 모든 과목들이 국·영·수·사·과·체 같은 일반 교과목과 함께 잘 어우러지도록 커리큘럼과 시간표를 짜느라 고심했고, 공교육의 틀 안에서는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구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대안학교를 기본 포맷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제 세워진 지 2년이 조금 안되었지만, 한국국제예술학교는 한국 음악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는 세간의 평을 받으며 순항하고 있다. 모쪼록 더 많은 음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평생 음악을 친구이자 동반자처럼 행복하게 즐기

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소망하며,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교육자인 나와 음악에 대한 짧은 단상을 적어 본다.

사람들은 소위 예술과 체육을 하나로 묶어서 예체능이라고 부른다. 예술가 혹은 음악가와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물어본다면, 두 분야 모두 체력과 영혼을 쏟아붓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예체능 안에서도 나의 전공 분야인 클래식 음악, 그 안에서도 가장 높은 음역대를 가진 현악기인 바이올린을 다루며 살아가는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취미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달리 음악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 모든 것을 걸고 불철주야 자기만의 고독한 싸움을 한다는 것이 마치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는 운동선수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는,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산다. 여러 기악 연주자들이 연습을 충분히 못하였을 때 손이 굳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갖고 살고 있고, 몸이 악기인 성악가들은 건강을 챙기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몸이 틀어진 비대칭적인 연주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바이올리니스트는 연습시 불필요한 곳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중력을 이용해서 힘을 싣고, 관절과 팔, 날개뼈 등의 올바른 근육을 사용하도록 노력한

다. 많은 학생들이 명성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전공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것 보다는 오랫동안 부상없이 연주할 수 있도록 멀리보고 현명하게 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턱과 목에 악기가 닿도록 쇄골에 안착시키고, 왼손으로 정확히 운지를 하고, 오른손으로는 활을 쥔 채 윗팔과 아래팔, 그리고 손목에서 손가락으로 내려오는 힘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최상의 소리를 뽑아내는 과정은 단지 기교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음악적 지식과 기반을 닦기 위해 음악이론과 음악사를 깊이있게 공부해야 하고, 연주하는 곡의 작곡가가 어느 시대에 어떻게 살았으며, 그 시대에 맞는 연주 스타일을 어떻게 연주해야 나만의 해석과 최상의 표현력으로 청중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연습에 임해야 한다.

현재의 나는 대한민국에서 오십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나의 음악 여정은 열세 살 때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입학하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대학과 석사까지 줄리어드에서 수학하며 수많은 재능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였는데, 박사 학위까지 마치고 학창시절이 아득히 멀어져가던 어느 날 문득 머릿속에 의문이 생겼다. 소위 천재라고 불렸던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뭘하고 있을까? 십대, 심지어 그보다 어린 나이에부터 전세계적으로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천재라고 불리던 동기들이 하나 둘씩 음악 공부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거나, 근황을 알 수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속 질문에 대한 답을 서서히 깨달을 수 있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본인의 실력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예술가와 운동선수가 가진 공통점이며 이를 이루지 못하면 이 자리를 지

켜내기 어렵다는 것.

지금도 음악계에는 수많은 연주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 콩쿠르 우승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클래식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자식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기 위해 이 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문제는 콩쿠르 등의 단기적인 성공에 연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음악인으로 성장하는 길이 맞느냐이다.

분초나 길이, 무게로 순위를 매길 수 있고, 통계와 수치로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는 일부 스포츠도 경기 때 심판에 의해서, 또는 여러 다른 이유로 수많은 오차와 편파 판정이 일어나 피해를 입는 선수들이 존재한다. 스포츠도 그러할진대 숫자를 매기고 수

치로 결정하는 것

이 불가능한 음악계에서는 대회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을 해야

하며, 소위 말하

는 편파 판정이라

는 것을 원천봉

쇄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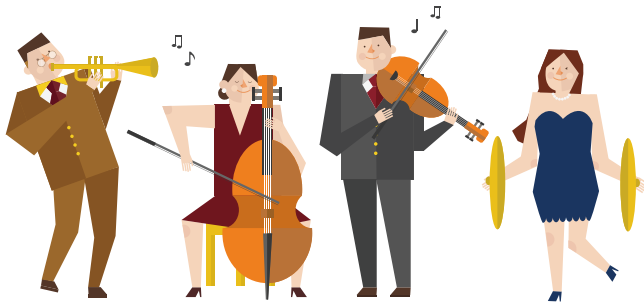
물론 우선적으로 공정

성에 호소해 볼수는 있

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듣는 귀가 각기 다른데,





심사위원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A의 연주가 B의 연주보다 좋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보편적인 잣대가 존재한다고 해도 공정성의 문제가 아닌 취향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위낙 인간이란 본인의 이익을 쫓고, 계산속에서 타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결국 심사위원의 양심과 능력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내는 수많은 불공평한 평가와 결과에 대해 음악 전공생들과 학부모들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9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들었던 생각이었다. 예중, 예고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실기시험 후 점수로 순위를 매기고, 그 기준점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심지어 공정하지 못하더라도 점수를 받는 학생과 학부모는 그 숫자를 보고 울고 웃고, 큰 좌절을 하기도 한다. 연주자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연주란 결국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 삶의 경험과 연륜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몸과 마음에서는 자연스러운 음악이 나오기가 힘들다. 다른 말로, 본인의 음악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음악은 없다고 보면 된다. 모든 학생들은 엄청난 포텐셜과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공교육 시스템이 짓밟거나 억눌러 버린다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수많은 아이들이 뜻과 재능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학교라는 시스템이 정해놓은 틀 안에 갇혀 자기만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채 연습하는 기계가 되어 노동처럼 음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십대 초반부터 세계 여러나라를 다니며 수많은 음악인들과 청중들을 만났다. 내가 진심으로 존경을 표할 만한 음악의 거장들뿐만 아니라, 매 순간 삶을 즐기며 무대의 크고 작음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던 음악가들과, 그들의 연주와 음악에 행복을 느끼며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 청중들에게 익숙해 있던 나에게, 젊은 음악가들과 그 부모들이 대학입시를 인생의 최대 목표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신이 있다면, 노력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음악가들과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이 더 좋은 음악교육과 문화를 갈망하고 있다. 나는 학교와 내 삶을 통하여 나 자신과 그들을 위해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내가 그렇게 배웠으며,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남 카라

바이올린 연주자

줄리아드 음대 학사 및 석사, 신시내티 음대 박사

2022년 한국국제예술학교(KISA) 설립

한국국제예술학교 교장

부다페스트심포니, 체코국립 교향악단, 서울시향, 국립심포니 등 국내외 유수의 교향악단과 협연 및 국내 외 다수의 콩쿨 1위 입상

2024년 UN 평화대상 문화예술부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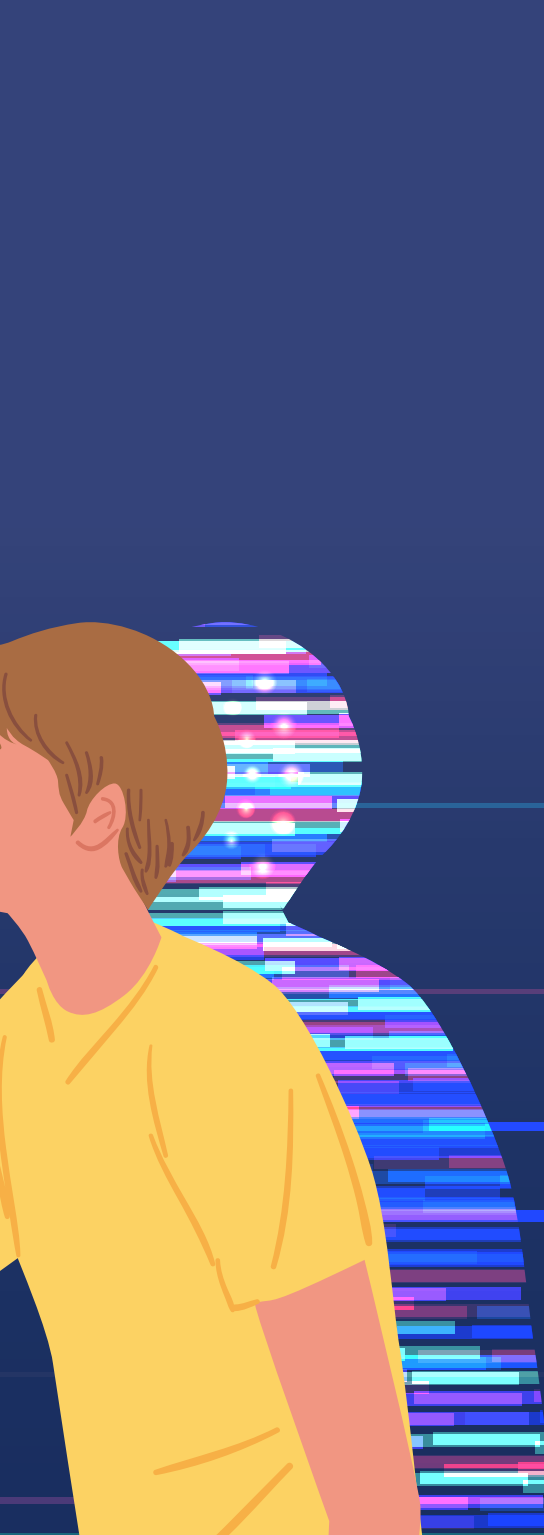
2024년 헤럴드경제 주최 대한민국 미래경영 대상 수상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고마운 당신에게

김범준 작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중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말도 있으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이 서로에게 예쁜 말을 건네는 세상을 꿈꿉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는 무심한 말, 상대의 존재를 떨어뜨리는 거친 말은 그만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다정한 응원이 되고, 힘찬 격려가 되어 결국 따뜻한 인간관계로 가득한 세상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게 된 듯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며 그 두려움은 더욱 커졌죠. 오랜만에 만난 이들과 어색한 침묵을 흘리다가, 되려 혼자였던 시간을 그리워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도대체 왜? 그 벽을 가로막고 선 건 결국 우리가 나눈 말에 있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 없이 던진 무심한 말들, 거친 언어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예쁜 말을 나누며 서로에게 다가가는 일이 그것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돌이켜 보면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기댈 언덕은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동행은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예쁜 말이 그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예쁜 말을 통해 일상의 작은 순간부터 따뜻한 관계를 맺고 나간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리라 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골프를 배우기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초보자인 제가 선배와 함께 골프연습장에 갔었는데 선배 앞에서 저는 자꾸만 공을 엉뚱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이때 선배가 저에게 건넨 한마디는 이랬습니다. “김 대리, 지금 자세만 봐도 알겠어. 곧 잘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스윙? 멋져! 프로 골퍼 같아!” 무안해하던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칭찬과 격려 속에 자신감이 샘솟는 걸 느꼈죠. 예쁜 말은 이렇게 힘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선배에게서 배운 건 비단 골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쁜 말에 담긴 ‘사람의 온도’의 중요성도 배운 겁니다. 화려한 언변이 아닌, 내면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말투,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애정이 있어야만 마음을 울리는 예쁜 말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온기를 담아내고 있는지, 그 온기로 누군가의 빈 마음을 채워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일상에서도 예쁜 말을 하는 분들의 사례는 많습니다.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결석한 학생에게 연락할 때면 “학교에 왜 안 왔어?”라는 말 대신 “학교에 왜 못 왔어?”라고 물어 보신다고 합니다. “안 왔어?”가 담고 있는 나무람의 뉘앙스 대신, “못 왔어?”라는 말에

답긴, 학생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받아들이는 이에겐 천지 차이로 다가가게 될 겁니다. 예쁜 말에는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저에게 예쁜 말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또 다른 스승은, 따로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의 병환으로 병원을 자주 찾곤 합니다. 매일같이 뵈게 되는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 중환자실, 응급실, 병실을 오가시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환자와 보호자를 향한 예쁜 말을 잊지 않으시더군요. “어르신~ 오늘 식사는 어제보다 조금 더 하셨네요. 점점 좋아지고 계세요.” “어르신~ 검사 결과 더 나아지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병원 생활에 지쳐가던 아버지도, 그리고 저도, 간호사 선생님의 예쁜 말 한마디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치유는 비단 의술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서도 오는 법이죠. 아픈 환자와 지친 보호자에게 건네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예쁜 말에는,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과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예쁜 말은 아픈 이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치유의 희망을 심어줍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이 세상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예쁜 말을 잃지 않는 간호사 선생님들, 참으로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예쁜 말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힘이 그것입니다.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예쁜 말 한마디는, 움츠러든 마음에 봄비처럼 스며들어 시든 꽃도 다시 피워 올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소중한 것들을 잃곤 합니다. 관계의 온기,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정. 그리고 그토록 갈망하는 마음의 평화까지 말입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예쁜 말을 건네야 할 때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차가운 침묵의 벽을 쌓아 올렸던 만큼 더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벽을 허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쁜 말을 통해서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예쁜 말로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물들일 거라 믿습니다.

AI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것들이 기계로 대체될 거라 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우리에게 되문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예쁜 말이라고요. AI는 효율과 편의를 선사하겠지만, 결국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건 오직 사람의 몫이기에. 그래서 앞으로는 예쁜 말의 진가를 더욱 발휘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는 일은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오직 따뜻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예쁜 말로 지친 누군가에게 휴식을 선물하고, 방향하는 누군가에게겐 살아갈 이유를 마음에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요.

당신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듣는 이의 가슴에 바로 닿는, 새로운 싹을 틔우는 힘 말입니다. 저 역시 예쁜 말로 그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지치고 외로운 순간, 누군가에게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품은 아름다운 언어들을 아낌없이 나누며 세상을 밝혀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쁜 말이 무성하게 자라 예쁜 말의 '숲'을 이뤄갈 때, 우리가 바라던 아름다운 변화도 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함께 걷는 이 길 위에, 우리의 예쁜 말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힘들 때면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아주는 우리가, 넘어질 때면 서로 일으켜 세워 줄 우리의 예쁜 말이 일상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온기를 전하는,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운 동행자로서 예쁜 말 하나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 범 준

작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 석사

[저서]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
<회사어로 말하라>
<오심에 읽는 장자>
<지옥에 다녀온 단테>
<인생의 오후에는 적보다 친구가 필요하다> 외 다수



간호의 경제성 평가와 정책적 활용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

우리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할 때 흔히 가성비가 좋거나 나쁘다고 말한다. 여기서 가성비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성능(효용, 품질)을 비교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가성비가 좋다는 것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이나 품질이 만족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제한된 소득 하에서 가급적 가격 대비 효용이 가장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정책도 가성비가 매우 중요하다. 민간기업이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최소의 예산으로 국민에게 최대의 편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을 학술용어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경제부처에서는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부사업에 대해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른바 예비타당성조사이다. 예컨대, 장기요양보험에서 간호요양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계획한다고 할 때,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간호요양원 시범사업으로부터 국민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과 소요 예산 600억원을 비교분석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한된 재정지출 내에서 환자에게



최대의 건강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행위, 의약품, 치료 재료를 평가하여 급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비용과 상관없이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의료행위나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보험재정 내에서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치료 효과가 좋은 의료행위나 의약품을 급여하도록 결정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 사적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인 간병 제도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경제성을 제고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경제성 평가의 방법

그러면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편익-비용분석(benefit-cost analysis, BCA)이 있다. 비용-효과분석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실물 단위로 측정하고, 사업의 효과를 사업 비용으로 나눈 비(ratio)로 경제성을 측정하고, 편익-비용분석에서는 사업의 편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편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편익(=편익-비용)으로 경제성을 측정한다.

예컨대, 취약계층의 고혈압환자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원이고, 사업 시행 이후 사업 대상자의 고혈압 유병률이 평균 20% 감소했다고 가정하면 이 사업의 경제성은 '1억원/20%=5백만원/1%'로 산출된다. 즉, 대상자의 고혈압 유병률을 평균 1% 감소시키는데 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여러 개의 보건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평가한다면, 각 사업의 '비용/효과'를 측정하여 효과 한 단위당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의 효과를 중간지표인 고혈압 유병률 감소에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수명연장(life years gained, LYG) 효과로 측정한 결과, 사업 대상자의 수명이 평균 2년 연장되었다고 하면 방문보건사업의 경제성은 '1억원/2년=5천만원/1년'으로 측정된다. 즉, 취약계층의 고혈압 관리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은 대상자의 수명 1년 연장에 대해 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보건의료 분야의 비용-효과분석에서 효과를 최종 산출물인 삶의 질을 반영한 건강결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를 비용-효용분석(cost-utility analysis, CUA)이라고 한다. 연장된 수명에 대해 삶의 질을 반영하여 평

가한 결과를 흔히 건강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s, QALYs)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에 비해 고혈압환자의 삶의 질이 80% 수준으로 평가되었다면 방문보건사업의 효과는 건강수명 1.6년(=2년×80%)으로 측정되고, 경제성은 '1억원/1.6QALYs = 6,250만원/QALY'로 측정된다.

비용-효용분석은 특히 공보험에서 의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의 급여 여부와 가격 결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기존 항암제의 건강수명 효과가 1년인데, 새로 개발된 항암제가 기존 항암제에 비해 가격은 2배이고, 건강수명 효과는 3년이라고 하면 건강수명 1년당 비용은 기존 항암제의 2/3 수준이므로 새로운 항암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할 타당성이 있다. 만약 새로운 항암제의 건강수명 효과가 0.5년이라면 기존 항암제에 비해 건강수명 1년에 대한 비용이 4배이므로 경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수명 0.5년 연장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보험에서 급여하는 것이 타당할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사회적, 정책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방문보건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려면 사업의 순편익이 0보다 커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건강수명 1.6년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화폐가치로 환산한 추정치가 3억원이라면 방문보건사업의 순편익은 2억원(=3억원-1억원)으로 산출되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여러 개의 보건사업에 대해 편익-비용분석을 수행한다면 순편익이 큰 순서대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배분하면 될 것이다. 편익-비용분석의 결과는 흔히 '편익/비용'의 비(ratio)로 측정되기도 하는데, 의사결정기준은 순편익의 크기이며, 편익/비용비는 참고로 사용해야 한다.

간호에서의 활용

보건의료체계에서 경제성 평가는 간호서비스나 간호인력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입증하는데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건진료원제도, 보건교사, 전문간호사, 산업보건관리자, 방문간호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간호병통합서비스, 재가호스피스, 조산사, 산후조리원, 장기요양 간호요양원 등이다. 여기서 열거한 사례는 대체로 간호사를 활용하는 대안이 가성비 높은 선택이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대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CEA, CUA, BCA를 적절히 적용하여 다른 후보 대안과 비교분석을 통해 간호사를 활용하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대안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보건진료원제도는 BCA를 적용하여 인근 도시의 의료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필수 일차의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대안임을 제시할 수 있고, 보건교사나 전문간호사제도는 CEA나 BCA에 의해 부족한 의사인력에 대한 가성비 높은 대안임을 보여줄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BCA를 적용하여, 국민의 사적 간병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을 설득력 있게 나타낼 수 있다. 최근에는 산모의 이용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병원 근무 조산사나 독립적인 조산원은 부족한 산부인과 의사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임을 BCA나 CUA를 통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간호요양원(nursing home)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부적절한 입원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대안임을 경제성 평가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간호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분야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간호사 인력의 활용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대안임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의 생산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건정책결정에 간호계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간호협회와 전문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간호학계의 협

력과 전략이 요구된다. 간호학자는 간호인력의 사회적 활용 방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연구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간호협회는 이를 현실의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소통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한국의 간호사는 외국 간호사에 비해 더 우수한 고등교육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지만 조선총독부 시절에 제정된 의료법의 기본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어 간호사의 제도적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여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오로지 간호학계와 간호계의 몫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한국통일평화간호학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보건학박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석사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원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



건성으로 하는 것.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정신의학 전문가와 성직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 하나는 ‘어찌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이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은 7, 80대 남성들의 깊은 반성과 후회에 대한 고백이었다.

“신부님 아파보니 조강지처가 이렇게 고맙고 또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탈이 나지 않고 사람이 자기(자신)를 반성하는 것이 가능할까?

정신과 교수님께 반성에 대한 무신론 관점에서의 견해를 확인한 적이 있었다.

의사선생님의 즉답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결론이었다.

“신부님 반성을 하는 사람은 가톨릭신앙에서 말하는 대단한 은총임을 인정합니다. 제가 중독전문가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종 중독 환자들만큼 후회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성당에 충실히 다니는 초등부 어린이들에게 반성과 후회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4학년 남자 어린이의 대답이 참 놀라웠다.

“반성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이고, 후회는 건성으로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행복은 분명히 있다. 전제조건은 반성하는 능력이다

행복은 무조건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비교와 물질에 대한 관심만이 전부인 경우임에 틀림없다.

1. 아담과 하와는 왜 낙원을 스스로 저버렸을까?
2. 그렇게 좋아해서 죽고 못 산다고 했던 특히 2, 3년차 부부들이 왜 그리 쉽게 이혼하는 걸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서로를 비난하고 떠넘기는 행동에는 무척 빠르고 민감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숙고, 고민, 반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분명 반성없는 인생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즉 권태, 싫증, 무감각의 부작용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좋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절대 행복이다.

끊임없이 후회만 하면서 권태와 싫증이라는 무감각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받기 힘든 선물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또보다 더 큰 은총이다.



Fr. 이요섭(요셉)

서울대교구 난곡동 성당 주임사제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원장



회원들의 이야기 에세이

- 20 최영란 멋지다 6A(응급) 병동
- 22 강예나 오해가 아닌 이해
- 23 신정현 하얀색 불꽃을 보고 싶다
- 24 김다솜 마음 한마디
- 26 김은진 30대, 간호과장이 만들어 가는 병원 이야기
- 28 강주현 나비효과
- 30 김아경 저는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 32 안해든 비와 환자
- 34 민보라 환자가 된 간호사
- 36 박지영 가운이 보여주는 진실의 순간
- 38 안체라 우리는 모두 낮과 밤을 오가며 산다
- 40 오지연 믿음의 4번 타자
- 42 이경민 신규간호사의 적응기
- 44 이문옥 정신과 간호사 이문옥입니다.
- 46 이미란 선택보다 집중
- 48 이은정 나는 어떤 간호사일까요?
- 50 이현진 어느덧 18년차, 회복마취간호사에서 정형외과 외래 간호사로
- 52 이서연 프리셉터 프리셉티의 관계
- 54 조소영 5분의 찰나
- 56 조유경 나의 금쪽이들
- 58 최경미 달리는 생명의 봉사자
- 60 홍지수 7박 8일의 우즈베키스탄



아침 출근길 좋은 동료들과 일하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곤 한다. 과장될 수 있지만 병동 구성원들과 2년째 화기애애한 분위기 형성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곤 한다. 선임과 후임의 수평적인 관계 형성, 수직적인 업무지시도 있지만 사람마다 일정한 선이 있고 선을 넘었을 때 기분이 상하곤 할 수 있다고 본다. 배려심이 많은 18명의 간호사가 모여서 일 수 있다. 위중(危症) 환자로 인한 예상 밖의 업무가중 시 주위 동료는 말없이 일을 도와주며 8시간 근무를 무사히 마치며 인수 팀에 “수고하십시오” 인사하며 퇴근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다.

웃으며 말하며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병동. 바쁘지 않아서 겹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권역 응급입원실 병동으로 응급실을 통한 18개 다양한 진료과 환자들로 응급 상황, 추가 처방, 사망환자 등의 긴박한 처치수행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병동이다. 그런데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기에 즐거운 일터임을 자랑하고 싶다. 그렇다고 일만 하냐하면 그것도 아니다. 원내 시행되는 프로젝트 참여 및 성공을 위한 노력으로 수상까지 이루어낸다. 멋지다.

부서원들의 성향은 한마디로 ‘선하다’라고 말하고 싶다. 조절 능력도 뛰어나다. 개인 신체 신호도 조절하고 막무가내인 보호자, 80세, 90세, 100세 이상의 고령환자, 치매 및 섬망 환자와 다수 입원환자들도 모두 조절하는 뛰어난 인재들이다. 식사도 자주 못하고 가쁜 호흡으로 일하는 환경에서도 심호흡으로 완급을 조절하며 다함께 적절한 호흡으로 맞춰 에너지를 끌어내고, 여유있는 미소와 따스한 말투, 평온한 자세로 평정심을 유지한다.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온화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병동이다. 열정과 의리가 있고 동료 서로서로 피로하지 않게 만들어 생기있고, 분위기 좋은 병동으로 6A(응급) 병동은 간호사들이 다 괜찮고 분위기가 좋아 사직자 없는 병동이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감사하다.

병동의 좋은 분위기 형성의 계기는 괜찮은 간호사만 있어서도 있겠지만 개인의 특이성을 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배경이 된 것 같다. 부족한 부분 감싸주고, 서로 응원하기, 밀어주고 당겨주고, 개인 각자의 특이성을 보장하고, 질타하지 않고 인정하며, 장점을 찾아 강화시키고, 개인 단

멋지다 6A(응급) 병동

최영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점을 부각시키지 않고 보완해주면서 아껴주는 진심 어린 마음.

간혹 역량이 부족한 이에게는 50%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선배들이 있어 즐거운 일터 일 수 밖에 없고, 단합이 잘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배려를 잘한다는 것이다.

교대근무로 자신(나) 입장에서 타인(동료)의 마음을 헤아리며 노력하고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상처받았다면 자신(나)도 상처받아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과 같이,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간혹 의사와의 관계, 타 부서와의 문제, 환자와 보호자와의 문제, 처치 수행시 발생되는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팀 문제로 보고 다각적인 고려와 개선방향을 도출시켜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가들이다. 이런 행동들로 병원내 환자안전관리 우수상 및 부서우수상을 받았다. 참 멋지다.

말로 하지 않지만 몸짓으로 ‘화났어요’, ‘건들지 마세요’라고 몸으로 표현하는 이들을 27년간 일하면서 일터에서 관찰하기도 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왔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분노 발생 포인트에서 함께 분노해준다. 선불리 위로하지 않는다. 기다려준다.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평정심을 찾아 일에 집중하며 온화한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선한 기운이 풍겨져 나온다. 멋지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 및 말투, 기량과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기품들이 보여지는 부서원들에게. 환자와 보호자 분들이 보내온 칭찬에는 선량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간호사의 모습을 보여주어 감사하다며 함께 공존하고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는 엽서, 신속한 처리와 전문 의료지식이 뛰어나며 자세가 참 선하고 아름답기에 칭찬하고, 상냥하고 친절하여 존경스럽다는 엽서, 잘 웃어주고 잘 돌봐주어서,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보호자가 할 일도 다 알아서 해주는 부분, 진심으로 걱정하고 정성스럽게 돌봐주셔서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엽서, 편안

한 상태로 환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셔서 감사하고, 청량한 목소리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유 없는 응급 병동을 찾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다고 전달받았다. 멋지다.

간호사 개개인들의 성향을 글로 공유하자면. 리더형으로 주변 환경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앞장서는 간호사, 아기자기하며 순한 소녀 같지만 난동환자 제압하는 카리스마 있는 간호사,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차분한 엔젤 간호사, 진심 어린 의리로 어떤 일이든 발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간호사, 든든하게 뒤에서 지켜주는 간호사, 웃음소리가 유난히 이뻐서 함께 일하면 복잡한 실타래를 풀리게 하는 간호사, 챙겨주고 싶고 연약해 보이지만 CPR 환자를 빠르게 살려내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간호사, 이론·경험적 설명을 잘하는 간호사, 귀여움으로 무장된 간호사, 다각적인 면이 많아 가교역할을 잘 하는 간호사, 산소 같이 존재 자체가 구세주 같은 간호사, 밝은 이미지로 연일 갱신하는 간호사, 묵묵히 신뢰감을 몸으로 느끼게 하는 간호사, 음식의 간과 맛을 내듯이 일의 강약, 균형과 조절을 잘 맞추는 간호사, 상대방의 장점을 부각시켜 훈훈한 분위기를 이끄는 간호사, “내가 해줄게” 항시 도와주려고 하는 간호사들이 모여 6A(응급) 병동을 24시간 동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 본다. 멋지다.

항상성 유지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묵묵히 눈에 띄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권역응급입원실 간호사들로 항상성을 유지한 채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회식시 참석율 97%, 너무 열정적이라 4차 회식은 필수. 자신의 끼를 뽐내며 흥도 많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몸과 마음이 이쁜 간호사들.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건네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병동의 관리자로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오해가 아닌 이해

강예나 삼성서울병원



대학교를 다니면서 ‘병원에 들어가면 나는 어떤 간호사가 될까’ 상상하며 했던 당찬 포부와는 다르게 막상 임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주하는 장면들은 생각보다 어둡다.

오늘 쓰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다.

환자, 보호자, 의료진은 사실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살고 싶고, 살아줬으면 좋겠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다. 같은 마음이지만 우리는 종종 서로를 오해한다.

공기 방울에 예민했던 보호자가 있었다. 그 보호자의 가족 중 한 분이 공기 색전증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되었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저 예민한 보호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보호자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다. 만약 내가 그 보호자에게 공기 방울에 대해 별것 아니란 듯이 얘기했다면 그 보호자는 나에게 불신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호자와 의료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시차를 만들어 낸다.

나 역시 보호자가 하는 간병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나의 가족이 아파서 하는 간병’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고, 종종 그들이 하는 간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더 환자에게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질책하는 듯한 마음도 있었다.

어느 날, 한 보호자가 우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동안 울지 않으려고 수없이 애썼을, 그러나 애석하게도 계속 흐르는 그의 눈물을 나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제야 그 보호자의 딱진 머리가,

다 늘어난 옷이, 썩한 채로 계속 감기는 눈이 보였다. 그 담담함 속에 녹아있는 슬픔을 보았다. 나에겐 그저 8시간, 그들의 하루 중 일부를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당장의 현실이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짙

힌 도로에서 환자의 건강이 초록불

로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무너지고 싶은 순간들 속에서 온 힘을 다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우리는 피부를 맞닿으며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여전히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

가끔 환자나 보호자가 밥은 언제 먹는지 물어볼 때가 있다.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땐 병원에서 환자 밥이 언제 나오는지 묻는 질문인 줄 알았다. 설마 나를 챙기는 질문일 줄은 생각도 못 했기 때문이다. 내 대답을 듣고 환자가 웃으며 “아니요. 선생님 식사 언제 하러 가시냐고요.”라고 되물어 왔을 땐 순간 멍해졌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섬망이 있어 욕을 하던 환자분이 어느 날 나에게 지어 보이시던 미소는 내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미소보다도 환했다. 내가 환자에게 건넨 손길은 환자에게 잘 버티고 있다는 응원이 되어준다. 우리의 투박한 진심은 서로를 위로하고 안아준다.

내가 잡은 환자의 손이 다시 내 손을 맞잡던 순간이 기억난다. 그 기억은 소진되고 벅차다고 느껴 몸과 마음이 너털너털해진 것 같은 순간에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한다. 잘하고 있다며 나를 다독여준다. 그렇게 우리는 서툴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한다. 아픔만이 있을 것 같은 병원 안에서 때로는 울지만 금방 또 웃으며 희미하지만 끈질긴 희망을 가지고 살아낸다.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함께 살아간다.

하얀색 봄꽃을 보고 싶다

신정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오늘 저녁. 거리는 하얀색으로 빛난다
도시 소음 속에도 하얀색으로 빛난다

가라앉은 내 마음도 잠시 하얀색으로 빛난다
잠시 빨간 신호에 멈춰서 하얀색 빛을 바라본다

잠시 잊어진다
오늘의 복잡한 세상들이 깜빡 신호에 하얀색으로 바뀐다
내일은 엄마와 함께 하얀색 봄꽃을 보고 싶다

아이와 환자와 나의 일상을 채운 것을 지우고
잠시,
나의 엄마곁에서
하얀색 봄꽃을 보고 싶다

<작품 설명>

매일 반복되는 일상, 병원에서 환자들과의 사투와 가정에서의 육아로 아무 생각 없이 살다 우연히 퇴근길 건널목에 서서 조명 사이로 빛나는 벚꽃이 엄마 생각을 떠오르게 했다. 엄마와 둘이 오롯이 함께 한 시간이 그리워지며 잠시 몽클해졌다. 엄마가 보고 싶었다.

잠시 일상을 미루고 쉬는 날 틈을 내어 엄마와 함께 벚꽃을 보러 갔다. 나를 돌아보면서 잠시 엄마와의 시간. 휴식을 누렸다. 하얀 봄꽃은 햇살에 빛나니 더 이뻐다. 잠시, 잠간의 여유... 만들 수 있는데 나를 지치게 한 범인은 바로 나였다.

얼마 전 한 초등학생이 숙제로 제출한 장기자랑 영상이 SNS에서 1000만 조회수를 넘으며 화제가 되었다길래 궁금증에 바로 영상을 찾아보았다. 영상 속 주인공인 2학년 노을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리듬에 맞춰 랩을 하며 본인의 꿈을 비트에 담아냈다. 귀여운 모습으로 열심히 랩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흥얼거리며 웃음 짓다가 영상의 마지막에 나오는 가사를 들을 때는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고였다.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차노을 - 「HAPPY」 가사 中)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팬스레 눈물을 흘린 게 나뿐만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현생을 살기 바쁜 어른들에게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는) 꿈과 희망과 같은 단어들은 가슴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일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아이가 외치는 저 가사를 듣는 순간 가슴 속 한편으로 미뤄두었던 나의 꿈과 행복들을 다시 꺼내 보게 하며 어른들의 마음에 위로와 안녕을 전했다.

“(환자의 마음을 듣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병원 입사 면접에서 어떤 간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몇 날 며칠을 고심해서 정했을 텐데 흐릿한 기억을 되살리면 제일 자신 있는 공감과 경청을 어필하려고 했을 것이다. 입사 전 갖고 있던 뜨거운 열정과 포부들이 흐려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모든 게 처음이지만 한 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는 피 말리는 상황들 속에서 온종일 긴장된 상태로 있다가 퇴근하면 그 후에는 엄청난 양의 공부할 거리가 쌓여 있었다. 그런 신규 생활을 보내다 보니 어떤 간호사가 되겠다는 다짐 따위는 며칠 만에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고 2~3년 차 간호사가 되니 동기들이 하나둘씩 병원을 그만두기 시작했다. 매일 몸도 마음도 힘든 사람들을 마주하니 지칠 만도 했다. 지친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서로를 토닥이며 버티다가 흔히 말하는 ‘현타’를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오면 가슴에 품고 다니던 사직서를 내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친구들이 병원을 떠나는 이유를 공감하면서도 나는 쉽게 사직서를 내지 못했다. 도망치듯 환자 곁을 떠나기는 싫었기에 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한 그 포부가 다시 생각나면 그때 나 자신과 타협을 보기로 했다. 그것을 핑계로 삼아 몇 년이 더 흘렀고, 마지막에는 일종의 오기도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다.

마음 한마디

김다솜 서울대학교병원

“나는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지.”

매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곳에 굳이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에는 매번 다른 답들을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 웬지 그래야만 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엄청 대단한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버틸 수 있던 건 아니다. 그보다는 일종의 오기가 마음에 자리를 잡았을지도 모른다. 다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면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따뜻한 마음 한마디가 찾아왔다.

영락없는 신규 간호사의 모습으로 줄줄이 수술 전 간호 안내문을 읽는 모습에도 차분히 설명을 잘한다며 칭찬을 전 해주시던 환자분, 수술장으로 내려가기 전 간호사님이 손을 잡아주신 덕분에 무섭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던 환자분, 선생님의 활기찬 목소리를 듣는 날에는 더 힘이 난다던 환자분. 모두가 지하철역을 향해 출근하던 시간에 혼자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맞은편에서 걷는 상황이 재미있던 나이트 퇴근길. 아직 찬 바람이 불던 겨울의 끝자락에서 데이 출근길에 우연히 마주한 나뭇가지 끝의 꽃봉오리...

하루하루가 치열했던 시간 속에서 결국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것들은 사소한 희망을 발견하고 마음을 위로받던 순간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몸도 힘든데 굳이 마음까지 쏟으며 일하냐고 말한다. 때로는 마음을 쏟아 일하기가 벅차기도 하고, 그 결과가 반드시 좋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순간들을 지나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환자들에게 받은 마음 한마디 덕분이 아닐까? 전해 받은 마음 한마디로 나는 웃음짓고, 위로받고, 희망의 순간을 경험하였기에,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 마음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고 싶다.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마음 한마디를 전하는 행복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30대, 간호과장이 만들어 가는 병원 이야기

김은진 목동현대요양병원



10년 남짓의 경력을 쌓는 동안, 나는 간호사의 행복이 환자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훨씬 전부터, 간호사의 존재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왔다. 내 삶과 정체성의 일부가 될 직업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간호이론가들의 의미가 아니라, 병원 최전선의 간호 현장에서 나는 무엇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간호의 영역은 그 역사 만큼이나 넓기 때문에 한낱 미물인 내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냐만은, 적어도 내가 느낀 간호의 영역은 ‘구현해내는 통로’였다. 병원이라는 커다란 조직을 움직여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수많은 의료 관련 직군들의 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소통과 구현의 중심에는 간호사가 있다. 글자를 실제로 구현해내고, 구현해낼 수 있도록 돕고 질서를 정리한다.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 ‘행위’는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바이탈사인 체크나 IV, IM과 같은 행위, 그런 것은 의사에게서 간호사로 위임되어 온 것처럼 간호사에서 간호조무사까지 위임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숙련도에 따라 어떤 간호사보다는 어떤 간호조무사가 더 잘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간호의 가장 중심부(CORE)에 있는 문제는 어

떤 간호 ‘행위’가 아니라 ‘간호’가 가지는 ‘의사소통 기구’로서의 능력에 있다고 본다. 마치 종합예술처럼, 약/식사/시설/검사/행정 과 같은 모든 부분이 집약되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마치 종합예술의 영역처럼. 나는 그게 바로 ‘간호의 영역, 간호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내가 간호과장으로 만들어가는 병원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까닭은, 전술한 것처럼 간호사의 행복이 환자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부서장으로서 우리 병원의 간호과를 간호하는 것이 환자를 간호하는 것과 일반이며 나아가 병원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라고 우겨보고 있는 것이다.

21년 8월, 난생 처음 부서장이 되었다. 당시 나는 갓 서른이 된 만 3살 된 아이의 엄마였다. 부서장 경력은 없었다. 환자안전간호사 경력이 있어서 인증이 두렵지 않다는 점, 그리고 권위적이지 않은 성격만으로 채용이 된 것이다. 코로나 시기에 요양병원의 간호 부서장을 맡는다는 것이 워킹맘에게 상당히 버겁고 어려운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간호사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된 잡무와 스트레스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견어내려고 노력했다. 글씨 쓰기, 단순 노동과 같은 일들은 하나라도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부서의 전화를 받거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여유와 친절함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바코드 기계를 들여오고, 카텍스를 없애고, 서식을 통일하고, 의자를 하나씩 교체하고, 대신에 다른 영역에서의 생산성을 올리려 했다.

편리함을 더하는 대신에 모든 불필요한 수직적 구조와 관습을 제거하려는 노력도 병행했다. 간호과 회비는 간호과를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했다. 간호과장이 회비를 내지 않는 대신 의료진이나 병원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대신 내려고 했다. 회식은 필요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일찍, 부서장은 식사 후 빠져주고, 술은 원하는 사람들만, 식사 후 병동별로 티타임/수다타임, 그렇게 하는 회식도 늦게 끝나지 않게, 가급적 회식은 잡지 않는 방향으로. 축하하지도 않으면서 간호과 회비로 챙기는 생일 기프티콘은 없애고 회비를 낮추는 조정도 시도했다.

무엇인가를 빼는 것도, 더하는 것도, 변화하는 것도 20대부터 60대까지 버무려진 요양병원 간호사들을 모두 어우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의 일환이었다. 나아가 이제 막 수간호사 직책을 단 선생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협회의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함께 듣도록 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기도 했

고, 신입사원들과 1달 이내 병원 밖 예쁜 카페에서 면담을 통해 부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문제 원인을 찾아 부서와 중재하려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기타 스트레스 요인들을 제거하니 자정작용이 일어났다. 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병동 구성원을 배려하기 위해 주말 근무를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는 선생님도 생겼다. 그렇게 다른 병원과 교육 연계도 하고, 간호학과와 실습생 연계도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간호의 영역에 행복을 한 스푼, 한 스푼 더해 본다.

존경하는 원장님께서 이런 노력과 진일보를 협력해주시고 허용해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얼마전 3주기 인증평가를 하며 각 부서별로 병원의 장점과 단점 3가지씩을 써낸 일이 있었다. 전부서에서 시설의 낙후된 것을 단점이라고 써낸 반면 '의사소통하기 좋은 병원, 수평적인 조직문화, 직원들 간 친절한 병원'이라는 장점을 공통적으로 써냈다.

기성세대와 MZ세대의 공존이 모든 조직들의 고민인 요즘,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변화가 필요한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며 '간호사를 행복하게' 하는 부서장이 되고싶다. MZ세대인 30대 간호과장, '낮선 요즘 세대'가 아니라, '잘 연결하는 세대'로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간호'의 본질이라 믿는다.

나비효과

강주현 서울아산병원



최근 의사 파업과 관련하여 병원의 환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한 달간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병원에 입사 후 7년간 쉼 없이 일을 하며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많이 지쳐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간절히 필요했던 일이기도 했다. 한 달간 쉬면서 그동안 못 갔던 여행과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냈고, 최근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조카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을 같이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득 병원에 계시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생각이 났다. 사실 '생각이 났다'라는 표현보다는 '대화를 하고 싶다.'가 맞는 표현일 것 같다. 매일 힘들다고 느꼈던 병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생각났다는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한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보다는 감당하기 어렵고 슬픈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특히나 내과병동에서 일하는 것은 완치가 되는 과정보다는 보존적인 치료 과정이라 감정적 소모가 심한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그들의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곤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그분들을 곁에서 따뜻한 말과 당당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더욱 더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한 달 동안 재충전한 기회를 통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휴가에서 복귀 한지 3일째 되는 날, 급성 간염으로 인해 사체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인 환자를 간호하고 있었다. 근무하던 중 담당 환자가 사체 간이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적같은 소식을 듣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환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접한 순간 너무 기뻐고 감사했다. 보호자 역시 한시름 놓은 표정이었고 많은 의료진들은 환자가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 환자는 섬망 증상이 있어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불안해보이던 환자분의 손을 잡고 나는 말했다. “OOO님 지금은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곧 간이식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조금만 더 버텨 봐요. 저도 최대한 좋은 컨디션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환자분이 내게 잡은 손을 꼭 잡고 눈을 지그시 감으셨다. 환자분이 당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그때의 평온했던 표정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또한 의사가 작성하는 인수인계 기록지에 “환자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많은 의료진들이 진심을 다해 치료해주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식 공여자의 간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취소되었지만 다시 한 번 기회가 올 때 까지 환자분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수술이 취소됨을 알리자 보호자분들도 많이 실망하셨다. 하지만 보호자는 “선생님들이 노력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다시 단단히 마음먹고 있을게요.”라며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주었다. 그러면서 환자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되었는지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분들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왔기 때문에 나는 형식화된 간호만을 제공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의무감을 넘어서 그 ‘무언가’를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나의 보람이자 지향해야하는 간호라고 느꼈다.

7년차 간호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세상에는 안타까운 사연의 환자들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암인지 몰랐던 분들, 걸어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분들 등 하루아침에 일상이 불가능해진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과정에서 환자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보호자들이 누구보다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호자들이 그로인해 힘을 얻어 환자를 온전히 돌봐줄 수 있는 것이 내가 환자분들에게 줄 수 있는 나비효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 역시 그분들을 간호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건강함과 명확한 간호철학을 세우고 돌봐야 할 것이다. 나는 전문지식을 함양한 간호사를 추구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의 이 세상의 마지막 따뜻한 기억이자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간호사로 남고 싶다. 훗날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 “이번 생은 아주 행복했고, 보람찼다”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저는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김아경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출근하면 항상 구급차 출입구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구급차가 몇 대가 왔는지, 무슨 증상으로 왔는지 슬쩍 살펴본 후 탈의실로 향한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에 비친 나에게 주문을 건다. ‘잘할 수 있어! 오늘 하루도 잘 버텨보자!’ 라고 외친 후 응급실로 내려간다.

응급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물품을 확인하고, 인계장을 확인한다. 그리고 EMR창으로 응급실 상태를 확인한다. 몇 명이나 있는지, 대기는 몇 명인지, 중환은 몇 명이나 있으며 상태가 어떠한지 등 전체적인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한다. 전체 인계가 끝나고 나의 팀 인계를 받으면 그 때부터 나의 근무가 시작된다.

졸업 후 입사하여 내가 원했던 부서인 응급실로 배정 받았을 때 굉장히 기쁘고 설레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며 스스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또한 그동안의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토대가 되어 잘 적응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현실과 이상은 너무나 달랐다.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은 정말 새발의 피였고,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경험했던 사회에서의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자 ‘내가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응급실에서 일하기에 알맞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며 굉장히 고민을 했다. 하지만 결국 일에 맞는 사람은 없으며 그저 버티고 배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죽음을 겪어봤다. 분명히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는 의식도 명료하여 나와 대화를 했던 환자가 갑작스럽게 심정지 상황이 일어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던 경우를 몇 번 경험해봤다. 그때마다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이별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슬픔이 나한테까지 전해져 온다. 환자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곧 사망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마음의 준비를 하며 환자에게 이별의 말을 전하는 것을 듣다보면 나도 같이 눈물이 날 것 같아 울음을 꺾 참기도 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배우자가 올 때까지 버티다가 배우자가 환자의 손을 꼭 잡고 ‘나랑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심정지가 오는 상황도 겪어봤다. 이 날은 정말 눈물이 나와 몰래 화장실에서 훌쩍이기도 하였다.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죽음 중 하나는 배우자가 차려준 식사를 드시다가 목구멍에 음식물이 걸려 결국 사망한 사건이었다. 이 때의 배우자분의 허망한 표정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저승사자를 물리치고 살아난 경우도 몇 번 경험해봤다. 심정지가 좀 늦게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던 환자가 1시간의 넘는 CPR 끝에 두 눈을 뜨고 의식을 회복하여 두 발로 걸어서 퇴원한 경우도 있었다. 이 날은 지금까지의 근무 중 가장 힘들었지만 제일 뿌듯한 날이었다. 사망할 것 같은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살 것 같은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나는 ‘사람은 쉽게 죽지 않으며, 사람은 쉽게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며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 응급실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든 일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일이 어렵고, 힘들고, 공부할 것이 많은 것들은 힘들어도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며, 공부를 통하여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것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대해도 너무 어렵다. 특히 간호사는 다른 의료직종보다 사람을 제일 많이 대하는 직업이다. 환자와 보호자는 기본이며 자신이 속해 있는 과의 의사, 타과 의사, 영상의학과,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중심에 서서 서로를 연결해주고 일을 해결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에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일보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훨씬 많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다.

특히 병원은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오는 특수한 공간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혹은 자신의 환자가 먼저라고 소리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생명이 위중한 사람이 우선이라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소리치는 경우도 많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다가 더 크게 다치는 상황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의식상태가 명료하지 않아 폭언, 폭행, 욕설을 행하는 환자들도 매일 최소 1명씩 있다. 가끔은 성희롱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환자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하다보면 “내가 이리려고 간호사가 되었나? 내가 왜 이러한 사람들과 존중하고 간호를 제공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 신규 때는 이러한 상황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아 일을 하는 도중에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다. 이럴 때마다 내 안의 있던 인류애가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혐오감도 생긴다. 하지만 가끔 내 두 손을 꼭 맞잡으며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그동안 나의 노력이 보상 받는 기분에 오히려 내가 상대방에게 더 큰 감사함을 느끼며, 나는 다시 간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큰 에너지를 얻게 된다.

오늘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나는 자랑스러운 응급실 간호사다.



이브닝 근무를 하는데 비가 정말 무섭게 오던 날이었다. 그치겠지 싶었던 비는 9시가 넘도록 멈추지 않았고, 일부 환자들은 본인 집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나는 빗물에 집이 잠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고, 그저 뉴스에서 나 접할 정도로 드문 일이라 생각했다. 나에게 집은 어느 재해에도 온전하게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으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밤 9시쯤 한 환자가 어떡하냐며 온 병실에서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나는 투약할 항생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해서 주변 소리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괴성은 점차 울음소리로 바뀌었고, 환자는 “도와주세요.”라며 외쳤다. 나는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환자에게 물었고, 환자는 가족들이 빗물 때문에 집안에 갇혔다고 했다. 그 순간 무섭게 몰아치는 비 생각이 번뜩였고, 오늘의 비라면 사람을 집어삼킬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몇몇 환자들이 지하 또는 반지하에 있는 자기 집이 온전한지 걱정하는 모습도 스쳐 지나갔다. 환자는 119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집 주변에 사는 지인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대신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나도 휴대폰을 들어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대기 순번은 200번 대를 넘어갔고, 순번이 되어서도 연결이 되지 않고 끊어졌다. 해당 병실 환자들은 더불어 긴장과 불안에 휩싸였다.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병원에 가두어야 하나며, 나를 질책했다. 이 비 속에 노인분을 혼자 내보낸다면 환자 역시 위험에 처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혼절에 가까운 정신상태의 환자를 안전한 공간에서 지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었다. 나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계속되는 고민 속에,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떠올려 관악구의 재난 재해팀 번호를 찾아냈다. 밤에 전화를 받을지 의문이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한 담당자분이 전화를 받았고,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주무관은 그러한 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번호가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병동 전화기를 꼭 쥐고 있었으나 콜백은 오지 않았다.

비와 환자

안해든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그즈음 환자는 혼절 상태에 가까워졌다. 지인들과의 반복되는 통화와 울음소리에 나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나의 불안이 환자의 불안 상태를 더 가중시킬 것 같아 최대한 차분한 척 행동했다. 병원을 벗어나려는 환자를 진정시키고 해당 지인들과 통화하며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지인은 구조대가 이미 도착했으나 빗물이 거세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말했고, 환자를 최대한 병실에 머물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때 ‘발달장애 가족, 반지하’라는 소재로 너무나 자극적이게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하지만 매년 쏟아져 나오는 침수 피해 뉴스들이었고 설마하는 마음에 해당 환자는 단속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해당 환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나에게는 해내야 할 투약 업무들이 쌓여있었다. 다른 환자들의 시술 준비와 투약을 진행하기 위해 해당 환자를 더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환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이 뉴스로 쏟아지고 나서야, 나는 찰나의 생각을 지나친 것이 후회되었다. 한 대형 신문사의 기자가 환자가 혼절한 틈을 노려 단독 인터뷰를 통해 손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환자가 살던 집안의 사진을 훔쳐가고 나서야 우리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신청을 했다. 근무 당시 이미 가족들이 4시간째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뉴스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다른 차원의 슬픔이 몰려왔다. 혼자 남은 슬픔에 사무칠 환자에게 미안했고, 그때 그녀가 병원 밖을 나서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다시금 의문이 들었다. 당장 내일 출근하여 그 환자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도 사라졌다.

우리 병원 간호사는 단순히 환자의 질환만 케어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극취약 계층에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사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삶이기에 깊이 공감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겪고 나자 정말 정신이 확 깨는 느낌이었다. 빈부격차와 사회 소외계층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해야겠구나 싶었다. 거센 비에 집과 가족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구나... 그 대상자가 나의 환자구나! 절감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당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언론 노출과 외부의 공격에 대해 확실한 보호막과 지지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환자는 외부의 공격으로 정신적으로 더 취약해진 상태이다. 혼자 살아남았음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환자의 상황을 제대로 모른 채 언론에 의해 표면적으로 해석된 상황에 대해 질타받고 있음을 자신도 알고 있던 터라, 그래서 본인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울의 깊이가 더 깊어진 것 같다. 26살의 나는 죽음에 익숙지 않으며, 감정이 요동치는 시기이지만, 간호사라면 환자에게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고, 차분하고 묵묵하게 그들의 곁을 지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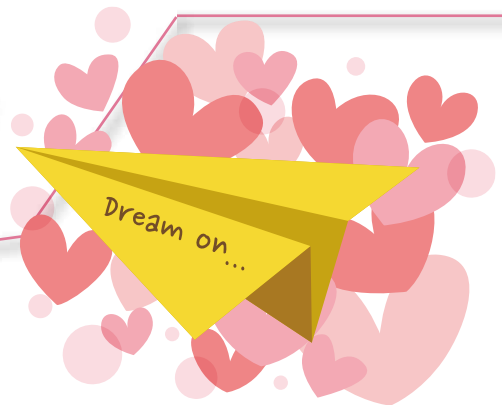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의사가 돌아가신 환자의 장례식에 가는 모습을 보며 이해가 안된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학생이었는데, 병원에서 근무하며 느끼는 마음과 퇴근 후의 마음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환자의 상황에 나까지 휩쓸리면 안되며 그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나니, 그 의사의 마음이 세세하게 이해가 되었다. 환자를 마음 깊이 아끼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려는 응원이었다는 것을 새삼 깊이 깨달았다.

퇴근 후 빈소에 들러 마음 속 깊이 가족분들의 명복을 빌고,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이 글을 적고 나서야 나의 감정 또한 정리가 되었고 업무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환자가 된 간호사

민보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나는 8년차 중환자실 간호사이다. 내 20대는 “임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향한 등반길이었다. 사실 지금도 그렇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궁금한 것도 많다. 다만 예전엔 보지 못했던 오르막길의 풍경이 이제 조금씩 보일 뿐이다. 그렇기에 나는 지금의 내가 무르익지 않은 간호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때 내가 매우 유능한 간호사라고 착각하던 때가 있었다. 성인과 소아 ECMO, LVAD, 심장이식 수술 등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를 간호하며 차지 간호사로 근무하던 때였다. 생명이 피고 지는 과정들을 지켜보며 임상적으로 꽤 많은 지식을 쌓았고 다양한 응급상황에 차분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작년 말 나는 응급 CT와 MRI를 찍을 정도로 심하게 전정신경염을 앓았다. 전정신경염은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겨 어지러움을 겪는 질환인데,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에 증상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한참 어지러움이 심할 때에는 세상이 요동치는 것 같아 걷는 게 무서울 정도였다.

나는 의료를 제공하는 ‘간호사’에서 ‘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홀로 응급실에 누워있으면서,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만 하는 통증, 언제 호전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은 내 마음을 흔들어놓았다. “왜 울어요? 최근에 우울했어요?”라는 의뢰진의 질문은 내 상태는 안중에도 없는 채 절차상 필요해서 물어보는 차가운 말로만 들렸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그동안 보아왔던 힘들었던 환자들의 모습 등이 오버랩되면서 그 기억은 두려움이 되고, 내 감정은 너무도 혼란스러워져 버렸다. 모든 게 서운하고, 불안하고, 우울했으며, 별 뜻 없는 말들은 상처가 되었다. 고통이 심할 때면,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빨리 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나의 절실함에 비해 더디 움직이는 것만 같은 의뢰진들이 야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환자들을 봐야하는 바쁜 와중에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건네 준 한마디의 말들은 하나 둘씩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다. “괜찮을 거예요, 나아지고 있어요.” 라는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잘 하고 계세요. 좋아지실 겁니다.” 라는 말은 내 온 몸을 따뜻하게 하였다.

환자가 되어버린 간호사!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지금껏 중요한 뭔가를 잊은 채로 달려오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되었다. 수많은 기억 속에 가장 나를 부끄럽게 했던 것은 돌아가신 환자분에게 ‘좋은 곳에 가시기를 바란다’고 속삭이며 내심 뿌듯해하던 기억이었다.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고 하여 그랬던 거였는데, 내가 과

연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던 것일까? 갑자기 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환자분들의 요청에 진심으로 답하였나? 돌보는 손길에는 늘 배려심이 있었나? 대하는 눈빛과 목소리에 거짓은 없었나? 돌아가시는 과정 중에 존엄성을 존중하였나? 이런 의심은 또 다른 질문이 되어 돌아왔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보다는 내 업무상, 내 직업상 좋은 마음으로 쉽게 말한 게 아닐까, 불완전한 과정 위에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말 한마디를 올려 마지막 순간을 완성시키려 했던 건 아닐까,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위선이었을까...

나는 간호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환자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위로하여 그들의 치료과정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렇기에 간호사로서의 소명을 찾아야 했다. 나의 소명이 있다면, 목표로 하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잠시 헤맬 순 있어도 언젠가는 진심 어린 간호를 행할 수 있을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임상에서 경험한 강렬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한 존재에 귀를 기울여 소명의 단서를 찾고 싶었다. 그러다 어느 환자의 보호자분께서 손수 뜨개질한 가방을 선물해주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환자분은 갑작스럽게 복부 아래로 마비가 생겨 오랜 기간 중환자실치료를 받으셨다. 처음에는 맑고 분명한 눈빛을 보이며 간호사들의 응원에 힘을 내셨지만, 날이 갈수록 그 눈빛엔 희망이 빠져나갔다. 그런 모습이 어른거려 환자분께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작은 손 편지와 책 한권을 선물로 드리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퇴원하시던 날, 보호자분께서 찾아와 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나의 작은 선물이 재활하는 데 큰 힘이 되었노라며, 안타깝게도 완전히 호전되지는 않아 재활병원으로 가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힘을 내볼 것이라며 웃으셨다. 나의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내 마음엔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임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일이 많지 않아 평온한 날이 아니었다. 너무 바빠 화장실 가는 것조차 잊어버린 날, 아이러니하게도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충만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다. 나의 작은 진심이 전해져 환자분들이 호전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내 존재의 의미가 확인되는 것 같았다. 생각해보니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간호사의 에너지만을 쏟는 과정이 아니었다. 환자와 간호사가 함께 교감을 나누는 과정이었다.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임상 생활을 버티게 해준 힘을 얻었고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채워나갔다. 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간호사로서의 나의 소명이 “환자에게 마음을 다하기”라는 것을.

소명을 가슴에 품고, 잊지 않도록 매 순간 상기시키며, 따뜻한 바람을 품은 나는, 그렇게 차츰 차츰 ‘잘 모르익어 가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또 나아갈 것이다.

가운이 보여주는 진실의 순간



박지영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봄의 따스함보다 한 여름의 열기가 넘쳐나는 4월의 어느 날
먼 친척분의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다. 장례식장은 언제나
그렇듯이 나를 긴장시켰고 모든 절차들은 나를 불편하고
어색하게 만들었다.

반백의 어른들은 그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어른처럼 보
여야 하는 온갖 가면을 벗어 버리고 어린 아이처럼 소리내
어 흐느꼈고 고인과의 보냈던 세월, 시간과 추억을 떼어내
기 힘들어하며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유족들의 눈에서는 사
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 허망한 인간의 삶에 대한 원
망등이 담겨져 있는 듯 하였다.

이런 무거운 장례식장을 벗어나는 마지막 발인 날,
운구차량 뒤로 따라 움직이는 차안에서 나는 볼 수 있었다.
3일 내내 장례의식을 도와주던 직원들과 식당에서 식사도
움을 주셨던 분까지 전부 나와 운구차량이 빠져나가는 도
로옆에 서서 두 손을 앞으로 포개고 고인을 모시는 차량이
본인 시야에서 사라 질때까지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표하
던 모습을....

그때 갑자기 내 맘속에 이상한 울림이 있었다.

깊은 감사함과 위로였다. 더 자세히 말하면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였다.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합니다”의 인사말같은
느낌이 아닌 상처받고 큰 상심에 빠져 세상의 위로가 필요했
던 가장 무기력하고 제일 나약하게 험한 세상 한 가운데에
떠밀려서 누군가가 손을 내 밀어주길 바랬던 바로 그 순간,
유족이었던 우리가 대접받고 있었다는 느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있었다는 위로가 되어주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장례식 내내 이런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사소한 행동이 커다란 울림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이런 울림속에서 나는 그 동안 나를 스쳐갔던 환자, 보호자들이 생각났다.

나이트 근무가 끝난 다음날 아침 밤새 근무로 피곤하겠다면 나에게 고마웠다고 말하던 10대의 골육종 환자.

80대 할아버지의 재원기간 내내 병실에서 간호하다 퇴원 마지막날 그동안 손녀같이 살갑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구겨진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던 할머니.

삶을 마감한 아버지를 대신해 그동안 고마웠다고 돌아가신지 몇 달이 지나 떡을 들고 와서 인사를 전하던 40대 아들 보호자.

뇌경색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내 손을 붙잡고 다른 건 다 따라해도 나이드는건 따라하지 말라며 손잡아주던 70대 할머니.

청력저하로 소리를 질러야만 의사소통이 되지만 항상 웃음으로 “나 간다”라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전하던 70대 할아버지.

백혈병 항암치료로 통통부은 얼굴과 민머리만을 보였던 분이 몇 년후 몰라보게 날렵해진 얼굴과 풍성한 머리숱을 자랑하고 싶다고 찾아왔던 30대 환자.

그들에게 난 어떤 진실의 순간으로 남아있을까...?? 난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병원환경이 어색하고 불편해하던 사람들에게 눈높이에 맞춰 쉬운 설명을 했을까...??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되묻는걸 보면서 귀찮아 했을까...??

자신이나 가족의 병에 불안해하며 사회적 지위나 온갖 가면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싶었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줬을까...?? 아니면 나이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원망하고 무시했을까...??

삶의 희망을 잃고 불안해 하던 유족들같은 마음 가진 환자,

보호자들에게 나는 손을 내밀었을까...?? 아니면 제공해준 간호에 고마워하지 못하고 더 바라기만 한다고 미워했을까...??

가운을 입고 병원내에서 식당을 가거나 커피숍을 갈 때 동료들과 웃고 즐기던 대화와 웃음소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바쁜 업무속에서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느라 대화중에 얼굴을 보며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내 모습에 무관심과 예의없음을 느끼지는 않았을까...??

일에 열중하는 모습이 오히려 문의하거나 되묻고 싶어하던 것들을 못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신경쓰지 못했던 내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진실의 순간처럼 각인되어 간호사의 이미지로 남는다는 걸 이번 경험으로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다.

대형병원이 많아지고 미디어매체등의 발달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커지면서 구체화 되어 가고 병원도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발전, 인프라를 쌓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의료는 의료를 행하는 의료인의 마음과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체는 의료인이라는 것을, 기본이 채워져야 기술이 발전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고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의 기본업무에 충실한 것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치 장례식장 직원들의 예의 바른 행동이 너무나 큰 감동을 주는것처럼 우리가 환자나 보호자를 응대하는 임상에서 큰 에너지나 비용적인 부분을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대상자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였다.

가운을 입고 근무하는 시간동안 가운의 무게를 느끼며 나는 생각한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른 이들에게 진실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낮과 밤을 오가며 산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보고

안체라 서울대학교병원



2023년 11월 방영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보셨나요? 시청자들에게 생소한 정신병동에서의 생활을 보여주고, 배우들의 열연으로 인해 3주 연속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정신과 보호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매우 흥미롭게 시청했는데요. 에피소드가 공개된 다음 날이면, 동료 선생님들과 드라마를 함께 보며 집에서 근무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소감을 나누거나, 과거에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던 환자들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를 시청하고 온 일부 환자들은 현재의 답답한 병동 생활을 드라마 속 한 장면에 빗대어 유머로 승화시키기도 했습니다.

OECD 자살율 1위인 한국의 씁쓸한 정신건강의 현실 속에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이 드라마는 매우 반가운 존재였습니다. 드라마 속 묘사된 정신과 환자들의 병력과 증상이 혹여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간호’라는 소중한 공간을 통해 제가 드라마를 시청하며 든 생각을 바탕으로 보호병동에서 겪은 소소한 경험들을 담아내어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과 ‘정신과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두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 비하여 점차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편 입니다. 정신질환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일상 기능에 큰 차이가 나지만, 조현병과 관련된 범죄 뉴스를 자주 접하다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서운 이미지가 형성되고 합니다. 실제로 정신과 병동에 자녀를 입원시키면서도 입원해있는 타 환자들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는 보호자들도 많습니다. 발병 전부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큰 환자들은 병식을 갖게 되면서 더 큰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정신간호학을 공부했음에도, 정신간호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편견을 발견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환자들이 보여주는 순수한 내면에 힐링을 받고, 웃기도 하며 스스로 반성하곤 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대장항문외과 의사가 퇴근 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주인공 간호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우울 삽화가 발생하며 입원 치료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간호 모형에서 배웠듯이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속 대사처럼 우리 모두가 낮과 밤을 오가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정신과 간호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국내 의학 드라마에서 간호사가 주연으로 등장한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드라마는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내 의학 드라마에서는 간호사가 주로 주인공을 보조하거나 병원 내 로맨스와 연관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 속 간호사의 모습이 현실과 일치하는 경우는 약 10%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드라마와 같은 대중 매체가 일반 대중에게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국내 의학드라마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 역시 의학드라마가 지니는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비교적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간호사가 정신 증상 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잘 녹여냈고, 환자들의 액팅 아웃 중재, 정신과 보호사님들의 역할을 포함하여 비교적 잘 고증되어 있었습니다.

드라마 방영 이후, 심리상담과 정신간호의 차이에 대해 양극성장애로 입원한 심리학과 학생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저희는 심리상담과 정신간호의 차이를 접근법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리상담은 주로 정신 건강 문제를 상담하며 내담자의 생각, 감정, 행동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정신간호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다보면 환자들에게 “간호사님이 이런 일까지 해요?”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간호처치와 투약은 물론이고, 아침 체조, 식사 관찰, 위생 체크, 프로그램 운영, 면담, 시트 교환 등을 포함한 하루 일상을 모두 함께 하며 생활에 깊이 관여합니다. 이 모든 활동은 간호사가 스스로를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여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서 환자의 전반적인 생활을 증진하도록 돕는 정신간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현장에서의 정신간호가 더욱 의미있고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정신과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정신질환이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신체 질환처럼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인식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4번 타자

오지연 경희의료원

나는 야구장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야구가 재밌고 좋다는 말은 아니다.

야구장 가는 길에는 내가 좋아하는 올림픽대교가 있고, 야구장에서는 나의 사회적 지위(육과는 거리가 먼... 심지어 순진해 보이기까지 해야하는)와는 상관없이 실컷 쌍욕을 해도 누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왜냐? 다들 “저런 공도 못치냐, 저런 것도 못잡냐, 삼진을 왜 못잡냐” 등의 욕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야구장도 혼자 다니는게 좋다. 아무도 나의 이중생활을 몰랐으면 해서 말이다.

야구에서 4번 타자는 매우 점수를 잘 내는, 홈런 타자이거나 안타를 잘 치는 타자다. 한마디로 잘하는 선수다.

내가 응원하는 팀의 4번 타자는 응원가부터 절도가 있다.

OO. 승리를 위해 다같이 ××××

그러나 내가 야구장에 직접가서 보았을 때, 그는 한번도 홈런을 날린 적도 없었으며 매번 헛스윙을 해대어 삼진아웃을 당했다. 내가 와서 공을 안치는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2024년 1월1일. 나는 새로운 병동으로 발령을 받아 업무를 시작해야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누구나 어렵다.

환경적응도 적응이지만 업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다.

더더군다나 알파에다 Z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있는 간호사들과 동고동락한다는 것은, 생각이나 몸이나 ‘이젠 집에 가서도 될 것’ 같은 나에게는 참으로 가혹한 일이었다.

실제로 나는 ‘응급사직’이란 말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

‘응급사직’이라함은 신규간호사만 해당되는줄 아는데, 내가 겪어본 바 그건 정말 아니다.

티가 덜 나서 그렇지, 아마도 간호사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들 가슴에 ‘응사’의 출사표를 가지고 다닐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응사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사람이다.

드디어 2024년 4월9일.

난 새로운 병동에서 100일을 맞이했다.

과거 신생아의 사망률이 높았기에 백일을 생존하면 돌까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다는 풍습으로 백일잔치를 했었지만, 실제로 백일을 견뎌보니 말 그대로 생존게임이었다.

업무면 업무, 환경 정리면 환경 정리,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어느 것 하나도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그래도 난 백일을 견뎌내었다.

내 자신이 기특하기도 하고, 나를 그저 바라봐주었던 간호사들이 고맙기도 하여 백설기 떡을 맞췄다. 짧지만 진한 감사 편지를 카톡으로도 남겼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저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주는 백일 기념 선물로 야구장을 찾아갔다.

그렇다.

그날도 어김없이 우리 팀은 지고 있었다.

나는 어김없이, 응원인 듯 아닌 듯, 욕인 듯 아닌 듯한 응원을 부르며 팔, 다리를 습관적으로 흔들며 대고 있었다.

그리고 4번 타자.

늘 기대도 하지 않던 4번 타자.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망이를 또 흔들었다. 쳇... 헛스윙이겠지...하던 그순간.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저 멀리 날아갔다.

이런 젠장, 홈런이었다. 그것도 역전 홈런.

그리고 나의 핸드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간호사들의 문자가 주르륵 들어와 있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잘 못하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해주신점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잘 지내볼게요”

–“선생님 너무 재미있으세요. 저도 늘 밝게 같이 잘 지내볼게요”

4번 타자가 드디어 홈런을 쳐서인지, 역전을 해서인지, 우리 간호사들이 문자를 주어서 고마워서인지...

욕은 화가 나서도 나오지만, 너무 좋아도 나오는 것이란 걸 다시 경험한 날이었다.

4번 타자가 왜 4번 타자인지 질문을 하지 말아야한다. 그저 믿음의 4번 타자인 것이다.

사람도 그렇다.

누군가 먼저 다가와 얘기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믿고 지내야한다.

나에겐 믿음의 4번 타자들이 백일만에 생긴 것이다.

더딘 나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바라봐주었던 믿음의 4번 타자들에게 나는 오늘도 감사의 일기를 쓴다.

그저 고맙습니다. 나만의 4번 타자들.

2023년 2월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하여 이제는 간호학생이 아닌 RN(간호사)이 되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열린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병원의 연락을 기다린 끝에 7월 발령을 받았다. 막상 발령을 받고나니 설레이던 마음은 어디로 가고 내가 어디에 배치될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일을 잘할지 등 온갖 것에 대해 걱정이 되며 입사가 점점 무서워졌다.

신규간호사의 적응기

이경민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시간은 흘러 7월 병원 첫 출근날이 다가왔다. 10일 동안 신규간호사 교육을 받고 그 뒤부터 배치된 부서로 가는 일정이었다. 교육기간 동안 병원에 대한 소개, 기본적인 간호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내가 배치된 부서는 소아청소년과 병동으로 내가 희망했던 부서로 발령받았다. 희망한 부서였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그 병동에 배치되어 떨어지는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이었다.

신규간호사 교육을 받는 기간 중 병동에 인사하러 가는 날이 있었다. 첫인상은 잘 보여야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지, 어떻게 인사하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긴장한 채로 부서 인사를 다녀왔던 것 같다.

교육 선생님들이 교육받는 이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하셨다. 짧았지만 알찼던 신규간호사 교육 기간이 끝나고 이제 내가 배치된 부서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첫 직장... 낯설고 떨어지는 환경에 동기도 없이 혼자 배치되어 솔직히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좋은 프리셉터 선생님들을 만나며 병동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배우며 8주간의 프리셉터 과정과 백독립 과정을 지나 독립을 하게 되었다.

프리셉터 과정에선 항상 내 옆에 선생님이 계시니 내가 수행하는 간호업무에 무서움이 없었는데, 독립 후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수행을 해야 한다는게 너무 무서웠다. 의사 처방 하나 날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 '이 처방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자신감도 너무 없었다. 마찬가지로 환자와 보호자 응대에도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특히, 인수인계 시간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랬던 독립 시절에 절대 잊혀지지 않을만큼 평평 울던 날이 있었다.

이 날은 독립한지 며칠 안되었을 때로, 담당 환자 중 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가 있었다. Tracheostomy(기관지절개술), PEG-tube(위루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환자는 Home ventilator(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적용 중인 환자였다. 다른

날과 비슷하게 출근하여 평소 루틴 업무를 하면서 라운딩을 돌았다. 라운딩 돌면서 환자 한명, 한명씩 바이탈을 측정하고 약물 투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코드블루 방송이 울렸다. 방송을 들어보니 내 방 환자였다. 깜짝 놀라서 달려가보니 환자의 spO2 60%까지 떨어지며 Home ventilator(가정용 인공호흡기)의 tidal volume(1회 산소공급량)이 걸리지 않는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안나며, 머릿속은 백지가 되었다. 선생님들이 응급처치로 앰부를 짜고 환자 상태를 지켜보는 동안 난 옆에서 시키는 것을 수동적으로만 할 뿐이었다. “약 준비해 오세요. 네뷸라이저 돌려주세요. 석션 준비해 주세요.” 등 이런 말에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했다. 다행히 환자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결국 중환자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수동적인 나의 행동과 이런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 때문에 환자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걸까라는 죄책감이 들었다. 이 환자 말고 다른 환자도 봐야 하는데 이 상황을 겪은 후 루틴으로 해야 할 업무도 다 놓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멍한 상태로 일했다. 실수도 하고, 놓친 일도 많고 해서 전공의 선생님과 전담 간호사 선생님한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결국 간신히 버티던 멘탈이 나가버렸고 선생님들 앞에서 엉엉 울어버렸다. 내가 잘못된 부분, 놓친 부분이 뭔지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다시 이런 상황을 겪더라도 난 똑같이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생각, 환자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 등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며 자책을 하였다. 독립 후 자신감 없던 상황에 이 상황까지 겹치니 간호사라는 직업이 나랑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며 집에 가서도 계속 울었었던 기억이 있다. 이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로 힘들었던 이 시기를 잘 넘겼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다.

현재 11개월차가 된 지금도 다시 저 상황이 되면 여전히 잘 대응할 자신은 없다. 하지만 저 시절처럼 멘탈이 나가는 상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처음은 무섭고 떨리고 자신감 없는 게 맞다. 경험이 없으니 업무에 미숙하고 실수 투성일 수밖에 없는데 막상 못한다고 나를 자책하였던 것이다. 물론 계속 발전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을 겪고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업무를 하다보니 확실히 지금과 그때의 나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느껴진다.

달라진 모습을 적어보자면, 긴장감이 많이 줄고, 자신감이 조금 생겼다. 예전에는 사소한 업무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자신감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긴장도 많이 하여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되며 업무 수행능력에 방해가 많이 되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하다 보니 업무에 대해 자신감도 늘고, 늘어난 자신감으로 인해, 또 긴장감이 많이 줄었고, 대처능력도 늘었다.

근무하다 보면 여러 부서들과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과 계속 소통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그들의 요구에 능숙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능숙하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오래 걸릴 일도 아닌 것에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도 했다. 현재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될지 어느 정도 틀이 잡혔고, 그로 인해 대응 시간도 빨라져 업무 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느꼈다.

물론 아직도 미숙한 점은 많다. 모르는 것이 많은 만큼 배워야 할 것도 그만큼 많다. 업무를 하다 보면 나의 부족한 점이 보인다. 이것을 보완하려 노력한다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업무에 더 능숙해 지더라도 지금의 이런 마인드를 잊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명언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배움으로 채워나갈 것이다.

정신과 간호사 이문옥입니다.

이문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나는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우리 병동에선 갑자기 혼잣말을 하는 것도 혼자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모두 그럴 수 있는 일들이다. 간호사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우리 환자들처럼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웃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 볼 때, 나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눈빛을 보았고 조금 슬퍼졌다. 우리 환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받았을 눈빛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리고 병동에서처럼 지하철에서도 갑자기 혼잣말을 하고 혼자 웃는 사람의 존재가 당연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환자들이 병동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지역사회 모든 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득 내가 간호사란 일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의 권유로 간호사가 되었고 그 이후로도 간호란 일은 그저 일이었을 뿐이었었는데 7년 차가 된 지금에서야 진짜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스무 살이 되던 때, 간호학과에 가지 않겠다며 일주일간 단식투쟁을 했다. 부모님의 권유로 성적에 맞춰 집 근처 간호학과에 지원했던 게 턱하고 불어버렸는데 상의도 없이 아버지가 등록금을 내버렸기 때문이었다. 일주일 투쟁의 결과는 나의 승리였고 어머니와 함께 등록한 대학교에 가서 학과장님 면담까지 마치고서야 등록금을 돌려받고 그렇게 원하던 미용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모님의 예상대로 미용학과는 나와 맞지 않았고 밥 먹듯이 결석을 반복하다 간신히 졸업을 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리고 삼십을 앞두고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간호학과 진학에 대해 다시 말씀을 꺼내셨다.

어릴 때 아버지가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간호사라고 대답했었다. 잘 생각나지는 않지만 하얀 캡과 하얀 치마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게 간호사가 될 줄 알았던 내가 미용사가 된다고 하니 아버지는 당황스러우셨을 거다.

나의 이십 대는 목표가 없었고 불안했다. 그리고는 삼십 대가 되자마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학생 간호사가 되었고 삼십 대 중반이 되어서야 간호사가 되었으며 사십이 된 올해, 내 발로 간호대학원을 갔다.

그렇게나 내가 간호사가 되길 바라셨던 아버지는 정작 내가 간호사가 된 걸 보지 못하셨다. 대학교 1학년 2학기가 막 시작됐던 9월.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가셨던 아버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다. 공장 시간에 도서관에 있다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셨다. 하늘이 높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볕은 따뜻했던 날이었다.



입원할 때 입으셨던 아버지의 바지 주머니에선 꼬깃하게 접힌 내 1학기 성적표가 들어있었다. 작은 아버지들 말로는 내가 전교 5등을 했으며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셨단다. 말씀은 안하셨지만, 명문대에 다니는 동생들과는 다르게 이십대 내내 방황하는 큰 딸이 많이 걱정되고 안쓰러웠던 것 같다. 아버지는 이따금씩 전화를 걸어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였고 책상 위에 사탕을 한 주먹씩 놓고 가시고는 했다. 아토피가 심해지는 봄이면 한센촌에서 독한 연고를 사다 놓기도 하셨다. 과묵했던 아버지의 사랑 표현은 늘 나의 뒤에서 조용히 걱정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방식이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십년 전, 영원히 60세가 되셨다. 그리고 나는 이 곳에서 그때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환자들을 간호한다. 이따금씩 환자들을 보며 70세가 되고 80세가 된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렇게나 하지 않겠다던 간호사가 되어 그 누구보다 간호를 사랑하는 지금의 내 모습을 아버지에게 자랑하고도 싶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가진
우리 환자들은

내게 아버지 같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들여다 보지 못했던 그의 외로움과 슬픔을 환자들을 통해 보기도 한다.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사랑의 말로 환자들에게 격려하기도 한다.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내 삶은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삶이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이 일을 더 사랑하고 간호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쓸모있는 '나'이기를 바란다.

공급실 수리를 위해 영선실 기사님이 오셨다. 인사를 하고 나 오려는데 각종 부품들을 실은 기사님 공구 카트가 눈에 들어왔다. 어딘가 익숙한 모습에 물끄러미 쳐다보게 되었다.

병원 개원 초기에 부위 마취를 위해 측면의 슬라이딩 작업대가 장착된 최신식 카트를 도면으로 그려 가면서 제작했던 Regional Cart(시술용 카트로써 척추마취나 경막외마취와 같이 부위 마취를 위해 사용하는 카트)였다. “어머!! 기사님, 이 카트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으니 기사님이 최근에 폐기용으로 관재과에 내려와 있어 작업할 때 쓰려고 가져와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다.

순간, 카트를 보면서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다.

본연의 쓰임이 아닌 또 다른 쓰임으로 열일하고 있는 카트가, 환자를 대면하는 본래의 업무가 아닌 부서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는 생각에 동질감을 느낀 탓일까?

누구의 딸, 아내, 엄마이기 보다 간호사로서의 삶을 더 많이 살아 온 나에게 간호사로 살아 왔던 30년 넘는 세월동안 몇 번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로 인해 나의 간호사로서의 삶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지금의 나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약, 오더 수행과 같은 간호업무하고는 많이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것 같다.

간호사로서의 첫 선택은 신입간호사 부서 선호도 조사에서 시작되었다. 1지망 중환자실, 2지망 수술실... 3지망은 생각도 나지 않는다. 아마 1, 2지망 외에 어떤 부서로의 배정도 원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원했던 1지망 중환자실의 TO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1지망이 아닌 2지망이었던 수술실을 선택하였다. 신규 시절에는 인체해부도, 기구 카탈로그, 장비 메뉴얼, 수술 프로시저, 물품 목록 등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였다. 간호학보다는 엔지니어 전공이었으면 좀 더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심장수술에 사용한 인공심폐기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수술실 간호사이면서 심폐기사로서 역할을 겸하게 되었다. 소아심장수술이 있는 날이면 수술하는 동안 인공심폐기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 하루종일 물 한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근무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하겠지만, 그때는 간호사로서환자에 대한 어떤 사명감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어느 수술실 선배 간호사가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글에서, 수술을 위해 수술방에 들어 온 환자는 자신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등 모든 것을 간호사에게 일임하는 것이므로, 간호사는 환자를 대신해서 수술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수술팀들이 수술부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감시하는 등 수술실 간호사로서 환자의 수호천사라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었다.

선택보다 집중

이미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이대목동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근무지를 목동으로 이동, 초기 세팅이 완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나의 간호사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나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흘러왔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가끔은 그때 승진을 포기하고 수술실 평간호사로서, 심폐기사로서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으면 나는 몸은 힘들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여러 부서와 여러 일들을 거치면서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야 다시 수술실에 안착할 수 있었다. 수술실에서 시작해서 회복실, 내과 병동, 간호부에서 다시 수술실로...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연기 인생을 마치고 싶은 심정처럼, 나도 다시 돌아온 수술실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간 이식, 뇌사자 수술 세팅을 하면서 밤을 새고 또 새는 일에도 지치지 않는, 청춘의 내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굼직한 과제들을 처리하면서 후회 없는 정년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후배들을 위해 지원부서로 옮겨야 한다는 말에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나이 들어 대한 생각과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에 자리를 옮기고도 꽤 오랜 시간동안 우울감에 빠져 있었고, 더욱이 그때 우리 병원 모두에게 크나큰 시련이 닥쳐와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때 직원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 의료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세 단어가 내 가슴 속에 큰 울림처럼 다가왔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진정성을 가지며 맡은 바 역할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영향력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누구는 소명으로, 누구는 전문 직업으로, 누구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마다 의미들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선택했건, 선택되었던 간에 삶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병원에서의 시간에 진정성을 갖게 되자, 모든 것에 가치와 의미있는 일들로 채울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의 나는 선택보다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집중하며 동료들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나는 어떤 간호사일까요?

이은정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간호사이지만 나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나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했 건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 건 나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속에서 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환자, 동료, 의사, 다른 부서와의 직원들.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내고 있고 어떤 사람으로 지내는 것이 과연 좋을 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저 착한 간호사? 그저 일 잘하는 간호사? 나는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먼저 나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환자에게 그저 착하고 원하는 것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과연 좋은 간호사일까요? 아니면 맡은 바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간호사가 더 좋은 간호사일까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서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환자들이 원하는 검사나 처치를 잘 하는 간호사이지만 가끔 환자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나의 업무만을 집중해서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한다고는 차마 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힘들어 하는 순간 나의 업무가 지체되는 것이 걱정되어 그 환자들의 마음을 모른 채 넘어가기도 합니다. 가끔 나에게 날카롭게 말을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 환자들에게는 더 그 마음을 헤아려 주기가 힘들어 질 때도 있습니다.

간호사도 사람이고 간호사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나에게 날카롭게 말을 하거나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모든 불만을 나에게 토로하는 환자들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끔 버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착하지 않거나 훌륭한 간호사가 아닌 게 될까요?

동료와의 관계속에서도 많은 힘든 일이 생깁니다. 물론 의사와도 다른 직종과도...

우리는 간호사이면서, 하나의 병원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맡은 일만 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특히나 환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다른 직종과 너무나 잘 어우러져야 하는 우리는 간호사입니다.

나는 MBTI에서 T가 발달된 성격입니다. 나는 일을 하는데 있어 Thinking을 해야 하는 사고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나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Feeling을 중시하는 감정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와 생각의 차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환자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주는 feeling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환자들과도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고 다른 동료들과도 더 감정 교류가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Thinking을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객관적으로 생각하다보니 가끔 거기에서 마찰이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고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성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어져서 지내는 것에 과연 정답이 있을까?

특히나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힘든 점을 잘 해결 해 주기 위해 나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은 지를...

단순히 나만의 성격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나의 성격을 숨기면서 내가 아닌 나를 표현하며 지내는 것이 맞을 지 궁금해졌습니다.

환자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해지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쉽지 않은 관계형성에서 내가 바라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간호사가 되기 위해, 나는 조금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내가 어떤 간호사인지를.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잘 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잘 하고 누구에게나 인정 받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간호사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직 많이 노력해야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나를 숨기지 않고 또한 환자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멋진 간호사

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나의 환자와 동료, 후배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간호사가 될 거 같습니다.

아직 그런 간호사가 못 되었다고 속상해 하지 말고, 아직 그런 간호사가 아니라고 힘들어 하지 말고,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노력하는 그런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2006년 3월.

지금의 병원에서 병아리 신규간호사로 일을 시작 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덧 18년차 임상 간호사가 되었다. 처음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던 그때는 병원에서 이렇게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15년차가 되었을 때 외래 간호사로 로테이션 할 기회가 주어졌다. 원래 회복, 마취 파트에서 일했었는데, 그 분야가 아주 특수한 부서이기도 했고 이미 익숙한 일이니 머무르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먼저 머리 속을 스쳤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넓은 임상간호사의 영역에서 너무나 작은 부분만을 경험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 두가지 생각들 사이에서 갈팡질팡 고민을 하다 수술실 밖으로 나가 보자 하고 덜컥 용기를 내서 내 직장의 전부였던 수술장, 마취회복의 잔잔한 우물을 나와 또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갈 마음을 먹었다.

어느덧 18년차, 회복마취간호사에서 정형외과 외래 간호사로 (부제 : 배치전환 적응기)

이현진 한양대학교병원

“외래에 갈 순서가 돌아왔어요”

회복마취간호사는 일반적으로 마취 상태의 환자만 대면하면 되어 컴플레인 없이 환자가 머리맡에 있으면서 중간 중간 환자가 깨지 않도록 마취약만 주면 되는 병원 안의 가장 편한 직군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처음 배치 전환을 신청해서 외래로 내려왔을 때, 왜 부서 이동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회복마취간호사 출신이라고 하면 왜 배치 전환 했어요?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외래 간호사로 5년동안 근무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병동으로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부서인 병동이나 중환자실 같은 곳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결국 회복마취간호사는 충분히 경험해본 것 같았고, 병원의 다른 부서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정형외과 외래로 발령받아 14년차의 병아리 외래 간호사가 되었다.

“정형외과 외래 간호사로 적응하기까지”

부서를 옮겨서 정형외과 외래로 출근을 했다.

마취과 수술실 안에서만 콧 박혀 일하다보니 정말 모르는 것들 투성이었다.

첫째, 전체적인 병원 시스템을 잘 몰랐다.

둘째, 검사들이 종류가 엄청 많은데 어떤 검사를 어떤 검사실에서 하는지,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결과 판독이 나오는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몰라서 새로운 검사를 볼 때면 울렁증이 생길 정도였다.

셋째, 마취유도제, 근이완제, 강심제, 마약성 진통제 등 이런 마취 관련 정맥주사용 약제들만 주로 공부하고 사용했었는데, 정형외과에 오니 전혀 다른 계열의 먹는 약이 너무 많았다. 약 모양도 잘 모르겠고, 약 이름도 비슷하고 어렵고, 부작

용이 생기는 환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적응하기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다. 14년차의 경험 많은 간호사이고 싶은데, 정형외과에 오고 1년 정도는 환자분께서 모르는 것 물어볼까 무서워서 환자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고, 전화벨 소리는 정말, 그렇게 무서울 수 없었다. 왜 배치전환을 했을까하며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곤 했다.

“외래 간호사... 매너리즘”

적응하기까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1년 반 정도 지나고 어느 정도 외래 일에 익숙해지니 진료실에 순서대로 환자만 넣었다 빼고, 접수만 받고 예약 잡아주고... 내가 여기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 것이 맞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회복마취간호사 시절을 떠올리며, 매일 같이 환자 바이탈을 다루며 위기 상황에서 마취의와 함께 고군분투해서 환자를 살리는, 그런 간호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었는데, 외래간호사인 지금의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빠져드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내 일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해보자”

새로운 경험을 해보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외래로 내려왔는데, 이대로 흘러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정형외과 질환들을 하나씩 다시 공부했다. 과거 차트부터 시작해서 현재 경과가 어떤지, 어떤 치료에 환자분이 많이 좋아지는지, 그렇게 케이스 리뷰도 많이 하고 환자분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환자분의 경과들을 열심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대학병원의 최대 혜택인 심포지움, 연수강좌, 학술대회에도 가능한 많이 참여했다. 그래서 임상에서 보는 것들과 이론적인 것들을 공부하며 어렵듯이 알고 있던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정형외과 외래 간호사로”

질병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나니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환자가 겪는 증상들에 공감해줄

수 있게 되었다.

정형외과 질환들 또한 퇴행성으로 진행되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전문 지식들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상담해주며,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외래에서 환자분들과 라포를 쌓아가다보니 한 동안 잊고 지냈던 일의 보람이 와락 다가왔다. 환자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감사의 마음을 받으면 무척 행복하다.

“회복마취간호사로서의 경험이 정형외과 외래 간호사로 일하는데 어떤 쓸모가 있나?”

요즘 또 새롭게 느끼는 점이 있다.

회복마취간호사로서의 경험은 이곳에 오니 아무 쓸모가 없네라고 생각했던적이 있었다. 그러나 환자들과의 상담중 마취에 대해 물어오면 회복마취간호사일 때의 경험으로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고, 피가 많이 나는지, (어느 정도 수술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느라) 수술 필드, 과정을 자주 보았던 경험이 정형외과 간호사로 일을 함에 있어 또 다른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을 느낀다.

“14년차 회복마취간호사에서 4년차 정형외과 외래 간호사로”

이제 어엿한 4년차 정형외과 외래 간호사가 되었다.

전화가 두렵지 않고 환자들과 지혜롭게 이야기 나누는 방법들도 알게되었다. 그리고 환자분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진행하게 될 검사들에 대해서, 치료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외래 간호사가 되었으니 간호사로서 한단계 레벨업 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든다.

외래에 오지 않았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일이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망설임없이 배치전환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 배치전환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 후배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 고민들에 조그만 위로와 쓰임이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짓는다.

프리셉터 프리셉티의 관계

이서연 건국대학교병원

간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환경을 마주하고 적절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일상들을 간직하기 위해 작년부터 순간순간들을 기록해왔다.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들과의 상호관계와 직장 내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데, 그 중 프리셉터 업무를 하면서의 느꼈던 소중한 감정들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2023.09.14

나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올해 5년 차로 근무 중이다. 확실히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는 것처럼 연차가 쌓일수록 고민거리가 많아진다.

작년부터 신규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입사하면 부서 내에서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프리셉터 업무 일을 맡았다. 현재까지 2명을 가르쳤고 이번에도 새로운 신규선생님을 만날 예정이다.

받기만 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챙겨주고 이끌어가는 성향이 있어 프리셉터 일은 나와 너무나도 잘 맞고, 이러한 특별한 관계의 작은 소모임이 생긴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나의 처음 입사 시절을 생각해보면, 낯선 곳에서 혼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외로웠고, 익숙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시간에 쫓긴 채로, 항상 나를 기다리는 담당환자분들에게 죄송스러웠다.

여러 상황에 많은 상처도 받고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힘들었지, 고생했어.”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신 프리셉터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 쓰러질 때 쫓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진 않았을까?

사소한 나의 행동과 말들이 앞으로의 신규선생님 간호사 임상 일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

처음 입사할 신규선생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신중하게 모범을 보
여야겠다.

.....
2023.10.27

교육할 때에도 단순한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
언을 들었다.

-어긋난 열정 :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

-참된 열정 : 내가 먼저 경험했던 일들을 공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
2023.11.03

오늘은 신규선생님과 데이근무를 마치고 남은 업무들
을 하는 중에, 수선생님의 부름에 발걸음을 옮겼다.

나랑만 붙어있는 신규선생님과 관련된 얘기들 즉, 신
규선생님이 독립해서 어떨 것 같은 지, 잘 적응할 것 같
은 지 등의 예상했던 질문들과는 달리 내가 힘든 건 없
는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등을 물어오셨다.

응? 뭔가 감동이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프리셉터 일
을 치켜세워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선생님께서도 프리셉터와 프리셉티와의 교감의 중
요성을 알려주셨다.

“모두 다 어색하고 어려운 순간에 먼저 연락을 할 수
있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커. 너는 여태 잘 챙겨왔고, 신규선생님도 너를
많이 의지하고 있으니 네가 큰 힘이 될 거야.”

괜히 울컥하는 말이었다.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었
던 것 같다.

“너는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선배와 후배들을
잘 아우르는 능력이 있어. 이제 병원 일도 익숙하고 지
겨워질 듯한 연차에 항상 열정적인 모습 보여줘서 말
은 안 했지만, 진심으로 고마워. 너의 큰 장점으로 앞으
로도 적극적인 후배양성을 기대할게.”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계속 울컥하는 마음이 든다.

직장생활에서 한 공동체를 이끌어주는 지도자는 중요
한 역할이다.

정서적 지지를 받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
속감을 주는 지금의 수선생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
2023.11.06

오늘은 우리 신규선생님의 마지막 트레이닝 날이다.

신규선생님과 출근 전 카페에서 만났고 간호본부에 제
출할 책과 자료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립하는 기분이 어떠한지 질문에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잘하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려는 열정만 있으면 된
다고 했다.

“잘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야, 확신이 안 서면 항상 물
어보면서 배우고,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아야 해.”

트레이닝 시키면서 직장 내 근무 태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준 것 같다.

당연히 힘들겠지, 지금의 나에게도 벅찬 날이 하루 이
틀이 아닌데... 그래서 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었다.

“모두가 힘들 수 있는 이 일을 다 같이 마칠 수 있
는 건, 같이 일하는 동료의 있으니까. 다들 도와줄 거
고,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거
고...”

독립하고 나서 배우는 게 더 크게 와닿을 것도 알려줬다.
이제는 엄연한 사회인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책임감있
게 행동했으면 싶다.

4주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프리셉터를 마치면
서 혹시라도 힘들거나, 어디 얘기할 사람 없을 때 생각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깜깜한 무대 위 나와 피아노가 조명을 받아 반짝 빛나고 있다. 이 세상에 나와 피아노 단 둘이 남은 듯이...

관객 모두가 숨을 죽이며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크게 숨을 고르고 용기를 내어 첫 음을 눌러 연주를 시작한다. 3개월 동안 무수히 노래 부르고 연습했던 멜로디에 의지해 나는 내 손이 기억하는 대로 수많은 건반 위를 누르며 한 곡을 완주한다. 마지막 음을 누르고 의자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관객들은 진심을 다해서 박수로 화답한다.

나는 관객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던 경험이 꽤 많다.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꽤 오래된 17년 전이지만, 그때의 나는 대부분 콩쿠르 무대에서 피아노 연주를 했다. 콩쿠르에 나온 어떤 참가자들보다 내가 돋보여야 했기에 어려운 곡을 쳐야 했고,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연주해야만 했다. 모두가 나의 경쟁자였다. 그래서 나는 즐기면서 치기보다는 '실수하면 안 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언제나 나는 틀리지 않게 잘 치려고만 했을 뿐, 즐기면서 아름답게 치려고 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피아노가 아닌 간호사의 길을 선택한 나는 깜깜한 새벽 4시 반에 출근해서 해가 지고 캄캄해진 오후 6시가 지나야 퇴근할 수 있었던 신규시절을 보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와 실제 임상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 모르는 것이 당연했지만 늘 혼나면서 배워야 했다. 한달 남짓 짧은 교육기간 후 10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해야 했고,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일이었기에 신규 간호사에게는 단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았다.

환자들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정작 본인은 물 한 모금, 한 끼니의 식사조차 챙기지 못하며 일하는 상황이 다반사였고, 담당 환자를 돌보는 중간중간 여러 업무들도 도맡아야 했다. 드레싱카트를 끌고 다니며 의사들의 드레싱 어시스트를 해야 했고, 어디서든 콜벨이 울리면 뛰어가야 했고, 병동 전화 벨소리가 3번 울리기 전에 즉각 받아야 했다.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들의 어떤 요구에도 친절하게 응대해야 했다. 쫓불을 들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했을 당시 가졌던 티끌없이 맑고 선한 마음가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현실이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너덜너덜해진 채로, 누군가가 관찰



5분의 찰나

조소영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냐고 어깨만 툭 쳐도 눈물이 우수수 떨어질 것 같은 얼굴을 한 채로 힘겹게 1년을 버텼다. 그보다 조금은 나아진 채로 또 1년을 버텼지만 신체적으로 힘들었던 3교대 근무와, 동료와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수없이 받은 여러 상처들, 의사들과의 일방적인 관계 등으로 마음이 힘들었던 나는 사직서를 내기 전 부서이동을 선택했다. 그곳은 식사시간, 퇴근시간, 화장실에 갈 시간 등은 보장된 곳이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를 해야 했다.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의 중간, 그 경계가 모호한 곳에서 나는 환자의 수술에 참여하고 수술 전후 과정을 도왔다. 누군가는 내가 속한 집단을 불법인력, 유명인력이라 부르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실상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미 약 2만 명의 간호사가 나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다닌다며 안정적인 간호사 직업이라 좋겠다며 부러워했지만, 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지 않았고, 이 일이 좋아지지 않았다.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오래 헤매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다. 꼭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이 일을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그래도 잘 해내고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인 것은 틀림 없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전까지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피아노학원을 찾게 되었다.



피아노를 배우면서 학원에서 여는 작은 연주회에 참가했다. 세 번의 연주회에 나가면서 어릴 때는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틀리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만의 호흡으로 노래하는 것이었다. 프로 피아니스트의 박자, 기교, 해석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 내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내가 이해한 대로 연주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잘 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연주를 하는 동안 아름다운 곡을 느끼면서 충분히 즐기고 있다면 몇 번의 미스터치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나가키 에미코 작가님의 <피아노치는 할머니가 될래> 책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목표가 없으면 좌절도 없다. 서두르지 않으면 포기할 일도 없다. 적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으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곡은 내 앞에 분명히 존재해 어디로도 도망가지 않는다. 인생에는 이런 세계도 존재했던 것이다. 목표가 없어도, 어딘가를 향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무작정 노력하는 그 자체로 즐거운 세계이다.”

어른이 되어 다시 마주한 피아노의 세계는 달랐다.

세상에 아름다운 곡들은 너무도 많았고, 나는 그 아름다운 곡을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할 수 있었다. 실수와 실패를 수없이 거듭해도 괜찮았다. 노력하면 할수록 분명히 나의 연주는 더 좋아졌다.

누군가의 인정과 평가를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닌, 그저 아름다운 음악 앞에서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이것이 아마추어 피아노 세계의 선물이다.

나의 금쪽이들

조유경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신규 입사부터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나는 생과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느낀 부분을 글로 옮긴 적이 있었다.

그동안 나도 어느덧 16년 차 간호사가 되었고, 현재 외과전담간호사를 거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다.

외과전담간호사로서 처음 만난 장기이식 환자는 어렵고, 예민하고, 위중한 환자들이었다.

어제는 분명 괜찮았는데 오늘은 확 나빠지는 예측할 수 없는 환자의 상태가 늘 어렵고 긴장이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일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 내가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그 때의 보람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 일을 시작하고 더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돕는 경험과 그 가치”에 대해 선후배 간호사들과 나누고 싶어 최근에 만난 나의 소중한 금쪽이들을 소개할까 한다.

나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서 24시간 KONOS call도 받지만, 환자 및 가족과 제일 먼저 만나 면담하고, 이식 대기자로 등록하면서 내 업무폰 연락처를 알려 주고 밤낮, 휴일에도 상관없이 연락을 받는다. 간장 대기자는 응급도가 뇌사기증자의 장기선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MELD 점수가 제일 높다면 뇌사자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점수가 제일 높다는 것은 곧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기에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한다. 환자의 보호자들은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됨에 따라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이후로 중환자실에서는 면회도 제한되어 있고, 의료진도 자주 만날 수 없고, 연락할 수 없기 때문에 연락처를 유일하게 아는 의료진인 나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의지하는 편이다.

A는 20대의 여자 환자로 급성간부전이 진행되어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중환자실로 전동되어 하루하루 뇌사기증자를 기다리던 대기자였다. 환자의 아버지는 병원을 벗어나면 너무 불안하다고 집에 가지 못하고 늘 병원에 계셨고 수시로 찾아 오셨다.

“오늘은 연락이 왔나요?” “순위는 몇 번째예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오늘 결과는 어떤가요?”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데 뇌사기증자는 선정이 되지 않아 온 가족이 기증자 검사를 하였다. 결국 응급 승인을 받아 둘째 오빠가 기증을 하였고 회복을 하고 보니 A는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애교가 철철 넘치는 귀여운 막내딸이었다.

B는 20대의 남자 환자로 평소 술을 좋아하는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간부전이 진행되어, 상태 악화로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였다. 폐렴 때문에 당장 이식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 때부터 약 두 달 동안 쓰지 않은 항생제가 없었고, 혈압이 불안정한 상황도 갔었다가 결국 기관절개까지도 했었다. 사실 간이식도 하기 전에 잘못 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환자의 아버지는 나에게 찾아와서 화를 낸 적도 많았고 수시로 전화해서 답답함을 호소한 적도 많았다. 이 녀석이 진짜 성격이 너무 좋은 녀석이라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울면서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가족들은 정말 피 말리는 지옥의 기다림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상태가 잘 호전되어 뇌사자 간이식도 받고 긴 재활 끝에 퇴원을 하였는데 길었던 재활기간동안 우울해하던 부분을 같은 시기에 입원해 있던 A가 많이 도와주었고, 나도 신경이 쓰여서 가끔 병실에 올라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원 후에 훨씬 밝아진 B가 A와 같이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 그동안 금쪽이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응? 금쪽이?? 누구??”

“저희 둘요! 맨날 사고만 치고 속 썩어서요!”

“하하! 맞네 금쪽이!! 지금은 둘 다 아주 잘 하고 있는데 뭐. 우리 금쪽이들 계속 열심히 키워서 효도 받아야겠네~”

“맞아맞아, 유경쌤은 그럴 자격이 있어!”

“아, 그런데 둘이 원래 동갑이었나요? 한 살 차이였던 것 같았는데...? 아닌가?”

“쌤! 제가 빠른인데요. 애가 자꾸 누나라고 안 불러요~. 야! 누나라고 부르라고 쫄!!”

“아니 요새 누가 빠른을 챙깁니까. 친구예요 친구~”

당시 그 상황을 잘 모를텐데도 스스로 금쪽이라 부르며 나를 부모님 대하듯 속 썩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모습이 참 귀엽고 감사하다. 중환자실 침대에서 의식이 없이 종일 누워만 있었을 때에 이렇게 밝고 명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누가 상상 할 수 있었을까. 남매처럼 투닥거리는 이들을 보며 나의 잠을 설쳤던 시간들, 가슴 졸였던 시간들과 그 누구보다 간절했던 이들의 부모님들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이들에게 평범한 일상과 가족과 친구들을 돌려줄 수 있는 내 일에 대해 보람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는 내가 해 주었던 것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있고, 만날 때마다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내 소중한 금쪽이들.

나도 이들에게 작은 감동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백명, 이 백명의 소중한 금쪽이들을 위해 계속 노력해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달리는 생명의 봉사자

최경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002년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인공신장실과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0년 가정 전문간호사로 매일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이 새로운 분야가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나의 간호가 환자의 치료와 안위에 도움이 되고 또 환자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줄 때의 뿌듯함은 내가 간호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졌다면 느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부서 특성상 많은 암환자를 간호하였습니다. 항암치료 중으로 오심, 구토, 식욕저하, 구내염, 통증 등 고통 받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더 줄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여러번 경험하니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기 환자가 의뢰되어 짧게는 수 일에서, 길게는 수 개월, 수 년 동안 가정간호를 진행하면서 질병의 진행을 지켜보고, 환자의 고통을 함께하고, 임종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삶의 가치, 목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시아버지와 2017년 친정아버지가 각각 암 진단을 받고 내가 간호하던 가정간호 환자와 같은, 힘든 치료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상간호사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만이었습니다. 보호자로서 겪는 환자와 가족의 삶은 더 처참하고 힘들었습니다.

수 개월 투병 후 가족의 사별을 경험하고 나서 간호사로서 환자와 보호자를 만났을 때,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병이 걸린 게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들지 감히 조금은 알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환자가 할 수 있는 것과 보호자들이 환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고 우선 순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로서의 태도와 가치관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하게 웃는 미소가 정말 예쁜 27세의 여자환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기관절개관을 하고 있어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얼굴표정, 고개를 움직여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13세 때 다발성경화증을 진단 받고, 16세 때부터 와상상태로 되었는데, 비위관과 도뇨관을 가지고 있고 욕창이 발생되어 주 2회 방문하여 많은 처치와 간호를 하였습니다. 환자의 어머니가 24시간 간병을 하였고 아버지와 남동생이 어머니 부재 시 간병을 보조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수입으로 병원 진료비, 가정간호 비용, 드레싱 물품, 경관영양식 비용 등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두 차례의 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간병인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아버지는 퇴직하시고 일용직 근무 중 무릎수술을 하게 되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성모자선회 가정간호대상자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매월 발생하는 가정간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연계하였습니다. 주거지인 경기도 지자체에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상처 제품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점차 욕창 상태도 호전을 보이고 환자의 건강상태가 안정되어 어머니의 간호에 소요되는 시간과 강도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간호 비용의 부담이 많이 줄어 어머니도 병원 진료를 다니고 본인 건강도 더 신경 쓸 여유가 생겼다고 고마워하셨습니다. 환자 방문을 할때 마다 간호행위가 다 끝나면, 환자와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가정간호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를 요청하는 환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며 기도하는 그들의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나 또한 눈물이 나지만 꼭 참고 기도를 마칩니다.

‘평화를 주소서’,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프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7박 8일의 우즈베키스탄

홍지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2023년 12월, 나이트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 EMR에 접속했다. ‘겨울 해외의료봉사 활동 지원’이라는 새로운 공지 글이 눈에 들어왔다. 7박 8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진료를 가는 지원 글이었다. 한번쯤은 가보고 싶던 해외의료봉사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간호부 대표 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했다.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내가 지원했다는 것도 잊고 있었다. 1주일 가량이 흘렀고, 파트장님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에 발탁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간호사 업무 특성상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예정에 없던 장기 휴가가 생기게 되면 다른 부서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지만, 모두의 배려 덕분에 차질 없이 갈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를 위해 선발된 인력은 외과교수 1명, 소화기내과 교수 1명, 소아과 교수 2명, 간호사 2명, 약사 1명, 외과 전공의 1명, 씨젠 의료재단 직원 2명, 학생 10명(의예과, 간호학과, 약학과,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이었다. 출국 전 준비과정에서는 사전모임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소통 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료의 틀을 짜고, 수용 가능한 환자들의 범위 내에서 물품과 약품을 준비했다. 또한, 현지 정서나 문화가 어떤지 파악하여 제한할 진료의 범위를 정하고 물품과 약품을 정하고, 간단한 인사말 등 언어를 배웠다.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 2월 4일 인천공항에서 타슈켄트로 떠났다.

처음 2일(2/5~6일)은 타슈켄트의 medical service clinic에서 진료를 하였고, 나머지 3일(2/7~9일)은 실다리오로 이동하여 마을 병원에서 진료하였다. 2명의 간호사가 분업하여 한명은 쏟아져 오는 환자들을 각 과별로 분류하고, history taking 및 초기 간호를 주업무로 하였고, 한명은 처방된 채혈 및 injection 담당을 하였다. 또 대기시간이 긴 환자들을 위해 학생들과 대민활동도 함께 하였다. 5일간 약 700여명의 환자가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작은 배려, 친절, 손길에 행복해하고 고마워하였다.

의료봉사는 나 뿐만아니라 봉사단 모두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줬다. 사전 모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발했다고 생각했지만, 의사소통의 장벽과 준비물품의 한계 등으로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매일매일 브리핑과 토의를 통해 다음 날의 진료를 준비하고, 더 나은 진료방법과 환자대응 전략을 고민했다. 이런 협력과 노력 덕분에 날이 지날수록 조금이나마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진료를 볼 수 있었고, 기다리는 환자들도 대민활동 등을 통해 대기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다.

의료봉사는 단순히 환자들을 돕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환자들과의 소중한 대화, 따뜻한 응원,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내게는 큰 보람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의료봉사는 단순히 의료적인 행위를 넘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느꼈다. 환자들의 미소와 고마움은 내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반복적이고 무료하게 돌아가던 병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또한, 한 부서 안에 갇혀 작은 간호 술기만 했었던 내가, 스스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진료를 주도적으로 돕고, 병원 안팎으로 다른 의료진과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봉사단 모두가 이 봉사를 통해 배움과 풍요로운 감정을 느낀다며 아직도 서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며 안부를 묻고있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일주일의 임상 생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 모두가 잠든 밤에도 등불을 켜고 있는 간호사

등불을 든 천사라고 불리는 나이팅게일처럼 모두 잠들어 있는 밤에도 불을 켜고 환자 곁에서 간호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 힘내세요.

강경미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 전장의 동료: 서로만이 아는 우애

매번 생사를 오가는 전쟁같은 하루가 끝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있지만, 우리는 서로의 고충을 알기에 마지막 주자까지 함께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고 서로를 토닥입니다

권혜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요즘처럼 너무 힘이 들 때는 그냥 멈춰있어도 돼...
그럼 우리가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너를 잡아 줄게

견두숙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 염원을 담은 시작버튼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시계를 보면서 누르게 되는 아프가스코어의 시작버튼을 누르면서 분만실 간호사의 아기의 건강을 간절히 바라고 기원하는 마음도 시작됩니다

김미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 너랑 나랑 1,000일

동: 동기야! 덕분에!
사: 사직하지 않았고!
나: 나랑 같이 버텨서
사: 사년차까지 달려보자!!!

김민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도합 85년차!!

도합 85년차!! 신규시절부터 함께
해 온 나의 선배들.

지금은 모두 다른 부서에 있지만,
앞으로도 꼭 함께 해요 ♥

박매승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9개의 빛나는 별

오랜만에 모인 9명의 동기! 우린 언제나 서로에게 그리고
환자에게 빛나는 별이야

김지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꽃꽂이-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우리 있잖아... 일할 때 환자의 얼굴 보기 바빴지만,
가끔은 이렇게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자...
혼자서 피어있는 꽃보다,
둘,셋이서 피어있는 꽃이 더 아름다울 때도 있다.

김정수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 내가 나를 돌보듯..

업무가 나를 몰아치던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스스로 챙기며, 돌보듯이...

박숙경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 그런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다면...

HF aggravation되어 intubation후 CCU에서 Ventilator care하는 환자분으로 기관내 삽관으로 구두로 말할 수 없어 가족들에게 못다한 진심을 편지로 작성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또 사랑한다며 지나간 평범했던 일상과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셨고 면회제한으로 가족들 얼굴을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할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저의 손을 잡아 주셨던 환자분의 온기가 가득한 사진입니다.

장윤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학부모 교육은 내게 맡겨라!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단은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과 보육직원의 건강 상태 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교육 실시 등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파이팅!

박진영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단



◀ 함께 갑니다~!

봉사를 함으로써 삭막해진 내 삶을 채워주는 느낌적인 느낌. 원원이지 않은가. 나도 좋고 동행서비스를 받는 환자분들도 좋고. 바쁜 상황에 도움을 받는 직원도 좋고^^

오늘도 신청한다. 동행서비스를. 동행서비스 신청하신분이에요 ~ 함께 모시고 가겠습니다!!!

양은경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병원과 나 분리하기

신규 간호사로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면 ‘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며, 집에 가서도 병원과 환자에 대해 생각하고 자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의 나를 집으로 끌고 오는 것이 스스로를 점점 갉아먹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은 밖에서 만나면 병원 이야기보다는 우리에게 대해 이야기하며, 병원에서는 일에 집중하고 밖에서는 서로에게 집중하여 건강한 마음으로 환자를 간호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승은 외 3명(김소희, 심유빈, 최가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 full bed의 아련한 추억

-전공의 단체행동으로 늘어난 빈 병실에 허탈한 마음을 느끼는 간호사의 모습-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으로 인해 병동의 늘어난 빈 병실에 허탈한 마음을 느끼는 간호사의 모습.

이지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 간호는 끊임없이 나아간다.

의료 공백기간에도 밝은 내일의 희망을 안고 간호의 현장을 곳곳하게 지키며 정진하는 간호사의 한결같은 모습

박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식



「2023년 간호 정책 제안 공모전」 수상 결과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간호계 현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간호계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AI 도입 후 간호현장과 간호사의 역할'이라는 공모 주제로 「2023 간호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총18건의 응모작품 중에서의 9건의 정책 제안이 수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수상자 소속기관을 통해 수상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을 통한 상장 전달과 상금을 지급하였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대상(1명) : 정태연(강북삼성병원)

◇최우수상(1명) : CMC_hemato181, 대표: 전해련(서울성모병원)

◇우수상(2명) : △링크너스, 대표: 최대원(은평성모병원) △한동균 외 5명(가톨릭대학교)

◇장려상(5명) : △임주영(서울대병원) △SNUH 44wd, 대표: 이형복(서울대병원) △우희진(서울아산병원) △김진수(세브란스병원) △이나연(서울대병원)



「2023년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콘텐츠 공모전」 수상 결과

다양한 간호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간호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간호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3 간호시뮬레이션 교육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모주제는 자유주제로 총14건의 시나리오 중에서의 7건의 시나리오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수상자 소속기관을 통해 수상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을 통한 상장 전달과 상금을 지급하였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시나리오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대상(1기관) : △박주희 외 2명(서울대학교병원)

◇최우수상(2기관) : △김미희 외 6명(강동경희대학교병원) △조아라 외 2명(강남세브란스병원)

◇우수상(4기관) : △한리라 외 2명(서울대학교병원) △이미숙 외 9명(한양대학교병원) △박애영 외 간호교육팀(삼성서울병원) △시은영 외 2명(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식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제77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3월 14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제77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간호법 제정 원년-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주제로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됐다.

조운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간호사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그에 상응하고 간호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나가기 위해 우리는 법적 테두리를 확보해야 한다. 보다 나은 간호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2024년 간호의 해’를 기약해본다”고 밝혔다.

총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료현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시민 건강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간호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축사를 전했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회의원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보건복지부 강석주 위원장은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참석하지 못한 국회의원 다수가 영상 및 서면 축전을 보내왔다.

개회식에 이어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점검하고,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발표 및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올해도 △조직 관리 체계 강화 △간호발전을 위한 협업 △간호정책 역량 강화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강화 △회원의 간호 역량 강화 △간호전문성 향상 및 지원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이미지 강화 △회원의 권익 옹호 및 복지 활성화 △근무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9가지 정책 과제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총회에서 선물된 쌀 화환은 구로구청 자원봉사센터를 거쳐 구로5동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이번 기부는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소중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이어져오고 있다.

이날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대한간호협회장상(1명) : △김종일(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간호본부장)

◇서울특별시장상(3명) : △노나리(세브란스병원) △문현숙(이대서울병원) △조현진(서울특별시간호사회)

◇공로상(15명) : △권금희(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김완숙(국립재활원) △김준희(한양대병원) △김창경(세브란스병원) △김현경(前 중앙대병원) △김혜경(前 경희의료원) △박미영(건국대병원) △박연수(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빈미애(강서구보건소) △송경옥(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이인숙(강동경희대병원) △이진숙(서울적십자병원) △이호선(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장정희(강남차병원) △최은주(여의도성모병원)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상(16명) : △최정순(강동구간호사회) △김효명(강북구간호사회) △황성희(강서구간호사회) △임성숙(관악구간호사회) △임영순(광진구간호사회) △우남희(노원구간호사회) △김은주(도봉구간호사회) △이연주(동작구간호사회) △이미선(마포구간호사회) △정해림(서초구간호사회) △하루미(성동구간호사회) △김은희(성북구간호사회) △김순희(송파구간호사회) △박춘영(양천구간호사회) △김을선(용산구간호사회) △최우영(중랑구간호사회)

◇우수구간호사회(2개구) : △동작구간호사회 △영등포구간호사회

◇모범간호사상(10명) : △권은정(강남세브란스병원) △김미영(이대서울병원) △김양수(세브란스병원) △김지희(국립재활원) △박정희(서울아산병원) △박현영(강동경희대병원) △신수경(한양대병원) △양선희(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이미숙(서울성모병원) △천경희(강서구보건소)

◇우수언론인상(1명) : △최관식(병원신문)



2024년 제1차 대표자회의

2월 20일 2024년 제1회 대표자회의가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본회 이사, 감사, 25개 구간호사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앞서 2023년 구간호사회 대민사업 경진대회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제77회 정기총회 개최 및 수상자 선정, 2023년 사업시행결과 및 결산보고와 2024년 사업계획안 검토가 이루어졌다.



2024년 구간호사회 실무자 협의회

4월 23일 구간호사회 실무자 협의회가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총 25개 구간호사회 총무, 회계, 서기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사업 소개 및 회계작성지침 등에 대한 설명과 사업 진행 관련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024년 여성마라톤 대회

5월 4일 서울특별시와 여성신문사가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여성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였다. 상암월드컵 공원 내 평화광장에서 개최되었던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294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회원들은 이후에 여러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년의 마라톤 대회도 기대된다는 의견을 주었다.



2024년 구간호사회장 간담회 개최

5월 9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강당에서 조운수 회장, 박정선 제1부회장과 구간호사회장을 비롯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간호사회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회의원의 간호리더 역할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구별 사업소개와 시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올해 새로 선출된 구간호사회장들이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조운수 회장은 구간호사회사업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구간호사회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식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 참여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들은 간호법안 제정을 호소하는 촉구집회를 열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는 총 810여명의 간호사가 4차례에 걸쳐 참여하였으며 참여한 간호사 회원들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다면 전혀 힘들지 않다며 집회 종료시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간호법 제정을 외쳤다.



2024년 간호계 원로 간담회

5월 31일 광화문 한식당에서 간호계 원로 10명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본회 2024년 사업과 간호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제18대부터 제40대까지 회장 및 부회장이 참석했다.



2024년 나이팅게일 캠프 - 상반기 프로그램

6월 4일·11일·13일·14일 4차에 걸쳐 「나이팅게일 캠프」 상반기 프로그램이 총 217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본 캠프는 나이팅게일의 철학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상반기 프로그램은 △김유정 문학촌 △남이섬 탐방으로 구성됐다. 캠프 후 참여자는 “즐겁고 좋은 힐링의 시간이었다”, “매년 시행되고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나이팅게일 캠프」는 하반기에도 진행될 예정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2024년 미래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기본(입문) 과정 개최

6월 13일 미래지도자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정치제도와 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리더쉽 함양을 통해 간호사 미래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미래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기본과정(입문)이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 개최되었다. 입문과정교육은 현 국회의원 보좌관, 구의원, 전 국회의원 등의 강사로부터 정치의 기본적 이해(국회의 기능과 역할),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젊은 정치, 간호리더의 역할에 대한 강의 및 참가자의 열띤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조운수 회장은 “미래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보건 의료정책 특히 간호정책, 간호법에 간호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2024년 서울간호돌봄봉사단 발대식 및 간담회 개최

6월 19일 2024년 서울간호돌봄봉사단원 및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회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이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조운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간호돌봄봉사단이 정기적으로 봉사처를 찾도록 지원하겠으며, 활동 참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특강에서는 서울특별시지원봉사센터 김원민 팀장으로부터 장기적 봉사활동시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고, 이규민 위원장으로부터 봉사단 연혁과 봉사처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봉사단원들의 의견 중에는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봉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방면의 봉사활동을 접해보자는 의견과 서울특별시간호사회가 주최가 되는 봉사처 찾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자는 의견을 주었다.



2024년 임원진 워크숍 개최

6월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2024년 임원진 워크숍을 여수-순천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운수 회장을 비롯하여 고문, 이사, 감사, 구간호사회 회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 35명이 네트워킹 및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식



2024년 제1차 법·윤리세미나 개최

6월 26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5층 강당에서 2024년 제1차 법·윤리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내 병원 등 간호부서장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원노무법인 김우경 노무사의 ‘간호현장에서 필요한 노무지식(사례 활용)’에 대한 강의가 90분간 이루어졌다.

김우경 노무사는 간호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무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과 간호부서장들이 실무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 간호부서장은 “임상현장에서 많이 필요한 사례중심이라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가 자주 개최되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하반기에도 간호현장에서 필요한 법적·윤리적 문제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간호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간호돌봄봉사단, '2024 플로킹'으로 환경정화 사회공헌 활동 실시

6월 29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서울간호돌봄봉사단은 단체 환경 봉사활동으로 서울둘레길 13코스 일부(금천구청역에서 구 일역까지의 약 6km 구간)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영역을 넓혀 시행한 환경정화 활동으로 현재 서울시내 간호사 140여 명이 서울간호돌봄봉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운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봉사를 위해 행사에 참가해 준 봉사단원들에게 감사하다, 지역사회 생태계 보존을 위한 우리 간호사들의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규민 간호봉사단운영위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서울간호돌봄봉사단은 약 두 시간 가량 봉사활동을 벌여 쓰레기를 수거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지금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최신 소식, 정보,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3초만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카오톡 열고 QR코드를 찍어보세요

* 채널 추가는 이렇게 하세요!



1. 카카오톡 실행
2. 상단 검색창 터치
3. 검색에서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입력



서울특별시간호사회
Seoul Nurses Association



서울특별시간호사회
Seoul Nurses Association

*서울간호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회원들의 매거진입니다. www.seoulnurse.or.kr